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843 1982년 6월7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June 7, 1982

JUN 1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통역 채용추진

캔터의원, 토론토의회서 "한국인은 시청접촉 많아"

토론토시 시의원 론·캔터(Ron Kanter)씨는 오는 9일(수) 시의회 집행위원회에서 토론토시청이 한국어 통역원을 고용할 것에 대해 발언한다.

블루어한인상가를 포함한 제5선거구 출신인 캔터의원은 지난 31일 집행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발송, '"나는 최근 한국계 선거구민들이 시청과 접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됐다.

◆존·캔터시의원

나는 시 총무국(City Clerk)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KBA), 또는 다른 지역단체와 협의, 보고해주기를 요망한다."고 요청했다.

(I woud like to request the City Clerk to report on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some assistance in the Korean language, possibly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or another community group.)

캔터의원은 2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한국교민들은 상점이나 자동차 관련 숍(오토·바디숍)등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시청서 허가를 얻는등 어느 소수민족들보다 시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 시청의 영업허가, 면허 또는 건물관계 개축허가등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므로 많은 한국교민들을 위해 통역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캔터의원이 발언한 집행위는 아트·이글턴 토론토 시장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안이 집행위를 통과하면, 다음 관계는 예산위원회(Budget Review Group)이며, 최종적으로는 2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토론토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총 소요기일은 4~6주.

남북으로는 블루어및 세인트·클레어, 동서로는 영·스트릿과 워싱톤·애비뉴로 둘러싸인 제5선거구 시의원으로는 교포사회에 잘 알려진 중국계 잉·호프의원도 있다.

토론토시에는 모두 11개의 시의원선거구가 있으며, 임기는 2년. (시의원들은 소속정당을 표방하지 못한다.)

각 선거구는 2명씩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캔싱톤·마켓 (유태인시장)서 도너츠·숍을 경영하는 황용성씨는 앞서 통역원 채용 필요성을 캔터의원에게 사적으로 제의했었다고 말했다. 토론토시청은 불어, 이태리어, 중국어, 그리스어, 폴투기스어등 5개 언어 통역원을 가졌다.

한편, 캔터의원은 교민들이 집행위원들에게 편지, 또는 전화로 이 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35세의 캔터의원은 80년 1월 선출된 초선의원 이다.

◆토론토시의회 집행위원

▲아트이글톤(Art Eggleton) 시장 367-7001

▲준·로랜즈(June Rowlands) 367-7015

▲고든·칭(Gordon Chong) 367-7914

▲프렛·비비스(Fred Bedvis) 367-7013

▲죠·피시니니(Joe Piccininni) 367-7011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조흥은행 김지점장 자살사건

횡령액 총 86억원

한국금융계는 썩을대로 썩은듯

(서울4일=연합)조흥은행은 지난 4월 자살한 조흥은행명동지점 지점장 대리 김상기(37)씨가 횡령한 금액이 총 86억원(미화 약1,180만 달러)였다고 밝혔다.

송기태 조흥은행장대리는 4일 86억원중 예금주가 "최씨"라고만 돼있는 3좌에 남겨진 27억원을 제외한 59억원을.은행이 원 예금주에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명의의 구좌는 모두 백개가 넘는다. 이들은 김씨와 거래가 많은 사채업자나, 친척들의 것으로 보인다.

송행장대리는 김씨의 개인재산이 9억원이므로 은행의 실제손해액은 50억원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김씨의 거액 횡령사건과 관련, 직원22명을 대기발령조치 했다. 이중에는 지점장 1명, 지점장대리 2명, 과장급 4명도 포함돼 있다.

김상기씨는 은행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다가, 보충하지 못하자 지난 4월19일 자살했다.

은행이 총 횡령액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것은 이철희·장영자부부의 어음부도사건이 터져 김씨가 끌어들인 예금주들인 사채업자들이 자취를 감춘 때문이다.

김씨는 은행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조건으로 친척·사채업자들의 예금을 끌여들인후, 무역회사·사회사업등 개인사업에 유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살당시 대한체조협회회장으로 있었으며, 프로복싱계에서는 전 WBA 세계플라이급 챔피언 김태식의 "대부"로 유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조흥은행 간부들과 명동지점 직원및 사채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섰다.

김영삼씨 다시연금

뉴욕타임스후 자택서 외부접촉금지

(서울=외신종합)전 신민당총재 김영삼씨가 자택에 연금됐다고 2일 김씨의 측근들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교외 지역에 있는 김씨의 자택에는 1일하오부터 약30여명의 사복요원과 버스1대의 경찰병력이 경비를 하고 있으며, 외국방문객들의 방문을 막고있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김씨가 뉴욕타임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자유직접선거를 위한 헌법개정을 촉구하고, 전대통령이 가을이전에 실각할 것이라는 발언이후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80년 5월이후 계엄령이 선포된뒤 3일후에 자택연금을 당했다가 3백4 5일만에 해제됐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금주의 행사▶

(6월7일~13일)

◆7일(월)하오5시 T·V한국아나운서 모집마감
곳 : 한인회(20 Mobile Dr. Tor.)
연락처 : 755-9288

◆11일(금)~13일(일)하오7시30분 토론토연합전도대회
강사 : 박조준 목사(서울 영락교회 담임)
곳 : Crossroads Cathedral
(300 Queen's Dr. 401 & Jane)
연락처 : 722-7979

◆12일(토)정오 제6회 교민친선골프대회
주최 : 한맘골프클럽
곳 : Glen Eagle Golf Club
연락처 : 863-0415

◆12일(토)하오7시30분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곳 : Ryerson Theatre
(43 Gerrard St. E)
연락처 : 534-1085

◆12일(토)하오7시 박종수태권도장주최 태권도대회
곳 : Don Mills Arera
연락처 : 961-7100

프로축구

조영증 토론토서 경기

16일 밤 블리자드와 대결

북미서 활약하는 유일한 한국계 프로축구선수 조영증이 오는 16일 토론토에 온다.

미국「메인」주 소재 포트랜드·팀버스의 미들퓌더인 조선수는 81년 봄 포트랜드에 입단, 명수비수로 대활약중이다. 작년도 포트랜드가 북미 축구리그(NALA)에서 가진 22개임에 전부 출전한 조는 골키퍼앞 스위퍼(Sweeper)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81년에는 4골이나 득점한 공격형 수비수이다. 81년에 스포츠기자들이 뽑은 금주의 최우수선수(Player of The Week)에 선정되었던 조는 연봉4 만달러로 북미 축구계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16일밤 8시 CNE 축구장(야구장과 같은 장소) 에서 펼쳐질 조영증의 포트랜드대 토론토의 블리자드게임은 금년에 토론토에서 그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경기이다.

캐나다축구협회(회장 고광남)는 열렬한 응원을 준비중이며 게임후 조선수환영의 밤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입장권은 본사(533-2361)와 브랜든스포츠사및각 식품점에서 예매한다.

◆드리블하는 넘버 23 조영증 선수.

7월1일 캐나다·데이 도미니온·데이 개칭

(오타와)지금까지 도미니온·데이로 불려온 7월1일 공휴일이 금년부터는 캐나다·데이(캐나다날)로 공식 개칭될 것으로 보인다.

제랄드·리건 연방체육장관은 4일 이름을 바꾸는데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야당이 적극협력할 용의를 보였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자체헌법을 가진 후 첫번째 맞는 이번 '도미니언·데이"는 도미니언(Dominion)"이란 말이 「영연방 자치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의미가 없어졌다.

세네월드사령관취임 군사력 강화 약속

(서울4일=연합)로버트·세네월드 신임 한·미합동사령관은 4일 취임식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을 재다짐했다.

4일 미8군사령부에서 있은 사령관의 취임식에는 윤성민국방장관을 비롯, 김윤호합참의장, 로버트·틀 미태평양지구사령부 사령관, 리차드·워커 주한미대사등이 참석했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illegible]하는 존·위컴 전 사령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한국과 한반도의 장래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신임 세네월드사령관을 취임식직후 청와대로 전대통령을 예방했다.

결혼연령 20세로

인구억제위해 고려

(서울4일=연합)한국정부는 인구억제책의 하나로 법정 결혼연령을 20세로 올릴것을 검토중이다.

현재까지는 남자 18세, 여자는 16세가 되면 부모의 허가를 얻어 결혼이 가능했다.

보건사회부는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결혼연령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60년대 3%에서 78~79년도 1.5%로 절반가량 줄었으나, 80·81년에는 1.6%로 다시 증가했다.

—제1회 한국일보—
어린이야구(소프트볼) 대회
1982년7월3일(토) : 코로네이션파크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SUNLIFE
백용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조영증선수 약력
◎74 : 81 한국국가대표
◎77년 MVP 수상
◎80년 한국대표팀 주장
◎81년 프로팀 포트랜드입단
◎81년 포트랜드의 전게임출전

Blizzard
오시라! 보시라! 즐기시라!
PORTLAND TIMBERS
북미서 활약하는 한국축구의 호프

조영증선수 토론토 등장
● 6월16일(수) 밤8시
● CNE 스타디움
● 축구협회서 조선수응원전 있음

조영증 환영의 밤
● 16일 CNE서 꽃다발증정
● 경기후 환담과 식사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533-2361)
★브랜든스포츠사(598-3732)
★시내 각식품점

많이 나와 조선수를 응원합시다.

—캐나다축구협회· 토론토 한국일보사—

East AsianLibrary
Rm 036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알젠틴에 퇴각 권유

댓처수상, "희생 막으라"

◆마가렛·대처 영국수상.

(런던)마가렛·대처영국수상은 2일 만약 알젠틴이 포클랜드수도 스탠리에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앞으로 10일내지 14일내에 알젠틴군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알젠틴군을 강제로 항복시킬것인가, 명예롭게 철수시킬것인가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처수상은 "알젠틴군부가 10일내지 14일내에 철수하겠다고 통고만하면 전투는 중단될 것"이라고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처여사는 자신의 제의가 시한부적인것도 아니며 알젠틴군이 이를 받아들여, 포트·스탠리 전투를 미연에 방지할것으로 크게 기대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군은 포트·스탠리를 완전포위, 포위망을 좁이고 있어 이 도시의 함락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위급전화

9 1 1

상록회원(전 위니펙교민) 야유회

서로 의지하며 정보교환

상록회는 오는 19일(토) 상오11시 써니브룩·팍(Sunnybrook Park : Eglinton E.×Leslie st.)에서 야유회를 갖는다.

상록회는 과거 위니펙에 살다 토론토로 이주한 교민들의 친목단체로 지난 5월22일 발족했다. 회원중에는 봉제사로 일한 여자교민이 많다.

상록회 발족을 위해 힘쓴 박영제(40)씨는 "위니펙에 살았거나 관련이 있는 교민은 누구나 환영한다. 상록회는 서로 의지하고 회원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발족취지를 밝혔다.

박씨는 현재 위니펙에서 살다가 토론토로 이주한 교민을 약 80여명으로 추산했다.

야유회의 점심은 주최측이 준비하며, 이날 참석을 못하더라도 주소록 작성을 위해 아래의 전화로 연락해주기 바라고 있다.

강마리아 782-4027
이 경숙 481-4170

통계학박사 탄생

윈저교포 이현식씨

(런던 강상권지국장)윈저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해온 이현식씨(35)가 지난 5일 동대학으로부터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박사는 앞으로 오타와의 연방정부통계국에서 일할 예정이며, 현재 신원조회중이다.

부인 이정현(33)씨와 1남1녀의 가족을 거느린 그의 학력은 아래와 같다.

75년, 전북대학교문리대 수학과 졸업
75년, 캐나다 윈저대학 유학
77년, 동대학원 수료
81년, 동대학에서 컴퓨터이학사 취득
82년6월, 동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 취득

◆이현식 박사

복합문화연극제 르자이나에서

(오타와)연방정부복합문화성은 오는 7월1일부터 10일까지 사스캐치완주 르자이나에서 열릴 제9차 연례전국 복합문화연극페스티벌에 6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짐·플레밍 복합문화성 장관이 발표했다.

전국복합문화연극협회가 복합문화성과 사스캐치완 정부의 협찬으로 개최하는 이 페스티벌에는 10개주 대표가 참가한다.

強盜에 한명被殺
조지아州 교포리쿼商

(애틀란타지국) 지난30일 새벽0시5분께 조지아주 사반나시 4818의 교포문권순씨(57)가 경영하는 리쿼스토어에 20대 흑인권총강도 1명이 침입, 가게일을 보던 문씨의 3남명섭씨(20)를 살해하고 현금 9천달러를 챙겨 도주했다.

스토어에서 함께 일을보던 명섭씨의 형 병섭씨(26)에 의하면 29일 밤 11시30분께 영업을 마치고 가게문을 닫고 동생과함께 귀가하려는 순간 단골고객인 흑인청년이 다가와 권총을 빼들고 자신과 동생을 가게 안으로 몰아넣었다는것.

교 민 동 정

◆문우일=지구물리학자로 학계에 널리 이름이 나있는 문박사는 최근 근무처인 마니토바대학(위니펙)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문박사 밑에서는 4명의 대학원학생이 일하고 있다. "바쁘기는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정신적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고.

◆바로잡음◆

지난 3일자 3면 독자투고 「양식과 양식」의 필자 조정이씨는 "불광사 신도"가 아니고, "선련사"신도로 바로잡습니다.

부동산매매시 법률적 제반문제

경제생활과 우리 ① Ⅲ법률상담편‖강찬영변호사 제공

경제생활 일반에 대한 지식을 공급, 우리살림에 보탬이 되기위한 본보「경제생활과 우리」 3번째 시리즈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법률상담편 이다.

담당자는 토론토 유일의 교포변호사 강찬영(28)씨이다. 강씨는 이 칼럼에서 교포들이 주택, 가게등 부동산매매를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법률적 상식을 누구나 이해할 평이한 문체로 다룬다. 특히 상점경영 교포들에게 유익한 칼럼이 될 것이다. 본 칼럼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본사 편집부(533-2361)나 필자(537-3171)에게 하면 된다.

필자 약력및 경력

▲71년 캐나다이민.
▲토론토대및 욕대학교 법대(오스굿·홀)졸업(79년)
▲캐스키변호사사무실 연수(80년)
▲변호사시험 합격(81년2월)
▲변호사사무실 개업(81년4월11일)
▲허령씨(서강대출신)와 결혼, 자녀 1남.
▲약 2년여에 걸쳐 본보에 「법률상식」시리즈 집필

◆강찬영 변호사

1.매매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구두계약(ORAL AGREEMENT)

가게를 매매하는데 있어서 꼭 갖추어야하는 서류는 매매계약서 이다.

교포들 사이에 서로 친한 관계로 서면으로된 매매계약서가 없이 구두로만 계약맺는 경우가 있다.

구두계약이라고해서, 법적효과가 아주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일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기때문에 구두계약의 내용이 어떤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 서로간의 감정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며,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들도 일하기 어렵다.

대개의 매매계약은 당사자들만이 제3자가 없는 상황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때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증인이 없이는 무엇이 사실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

구두계약보다 서류가 중요
매매계약서 정확히 기입

이런 점에서 볼때 서면으로된 매매계약은 필수라 하겠다.

◉매매계약서(FORM OF AGREEMENT)

어느 변호사사무실에나 미리 인쇄된 매매계약서 양식이 있다. 그렇다고 인쇄된 양식을 써야만 한다는 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내용과 형식은 바꾸어질 수도 있다.

(단, 사업체를 매매하는데 쓰이는 형식과 보통주택이나 땅을 매매하는데 사용되는 계약서는 그 형식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다. 적용되는 관계법규가 다르다.)

대체로 매매계약서는 사업체매매이든 주택매매이든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1)매수자의 성명및 주소
2)매도자의 성명및 거주지
3)가게나 주택의 상호와 주소
4)매매가격, 계약금, 중도금 및 잔액지불 방법(즉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이자율, 기간, 그리고 상환기간등이 명시돼야 한다.)
5)매매완료일(CLOSING DATE)
6)계약취소 날짜(IRREVOCABLE DATE)
7)매도자가 보장하는 사실(WARRANTY)

영국군과 알젠틴 쌍방이 인정한 지금까지의 피해상황

영국	알젠틴
5척 침몰, 8척 파손	순양함 1척, 잠수함 1척, [illegible]외위정 3척 침몰, 5척 파손
해리어제트기 8대 격추, 헬리콥터조종사 8명 실종	항공기 15대 격추
130명 사망	82명 사망, 342명 [illegible]

본사사원 4명 승진

창사이래 최초

본사가 일간발행 1주년(6월1일)을 맞아 발표한 「본사사령」(3일자 1면)에 의해 승진된 박정서(52) 공무국장은 20여년간 윤전기및 잉크와 함께 살아온 윤전기전문가이다. 박국장은 59년 서울 동아일보사에 입사, 금년 1월 이민오기까지 공무국 윤전기과에서 동아일보의 흑백및 칼라인쇄를 담당했다.

박국장은 토론토에 도착하자마자 본사 윤전기를 책임 맡았다.

송광호 광고국장은 지난 1년간 본지의 광고확보와 수금은 물론, 이번 리틀야구대회등 본사사업을 담당해 왔다. 송국장은 때로는 기사취재도 담당, 광고기자라는 호칭도 얻은, 본사에서 가장 분주한 사원중의 하나다. 이민오기전 서울서는 수년간 한국전력 영업소에 근무했고 토론토서는 한때 상점등을 운영했으며 계리업무를 배워 은행에도 다녔다.

편집1부장 조미래씨는 73년부터 76년까지 서울의 합동통신사에 근무한 기자이다. 이화여고-이화여대 영문학과-이화여대 대학원(신문방송학)의 학력이 보여주듯 영문에 능통하고 기사취급이 날카로운 실력파. 특히 음악과 문예에 조예가 깊다. 임문호씨와의 사이에 난 2남의 어머니.

유승민 편집2부장은 편집부의 만능기자. 휘문고교를 거쳐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중대학보」등 언론에 관여했다.

79년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에 있는 미국 나이아가라 대학교에 유학, 80년에는 온타리오구엘프대학으로 옮겨 경영학을 공부했다.

작년 8월 본사는 마침 방학중인 유부장을 픽업, 신문사에 눌러 앉혔다. 무엇보다 스포츠기사와 편집에 능한 총각 저널리스트.

본사가 사령을 발표한 것은 74년9월1일 한국일보·토론토 지국 개설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본사는 일간지로 확장된 후 점차 규모가 커지는 회사를 좀 더 체계화시키려는 생각에서 이를 발표했다.

◆송광호 광고국장

◆박정서 공무국장

◆조미래 편집1부장

◆유승민 편집2부장

◆프랑스의 베르사이유에서 개최되는 세계 7대국경제정상회담및 유럽여행을 위해 3일 오타와의 업랜즈 공군기지를 떠나는 피에르·트루도수상과 미쉘(6)군.

피크닉 또는 캠핑을 가는듯 팩색(packsack)을 등에멘 미쉘은 트루도와 별거부인 마가렛의 세 아들중 막내이다.

부모들을 위한 교육강좌

"한국교육과 한국인의 얼"

토론토의 한맘학교(교장 허영식)가 해마다 교육연구회(회장 조성준)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제3회(82년도) 한맘교육강좌가 「한글교육과 한국인의 얼」 주제로 오는 19일(토) 상오9시－하오1시30분 토론토의 한맘문화관(439 Dundas St. E. Parliament×Dundas)에서 열린다.

학부모·교사및 일반교포의 다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이날 순서는 제1부 강연, 제2부 그룹토의, 그밖에 특별순서와 다과가 마련된다.

제1부는 아래와 같이 네가지 교육강연으로 짜여지고, 제2부 토의는 구상회박사 사회로 진행된다.

1.한국인의 얼 : 유재신박사(토론토대학 동양학교수)
2.한국문학과 한국어교육 박동규박사(문학평론가·서울대교수, 현재 토론토대학 교환교수)
3.가정에서 한글읽기와 글짓기 : 이석현(시인·아동문학가·토론토한국일보 편집인)
4.복합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교육 : 조성준(한인교육연구회장·교육사회사업가)

버터도 공짜로 配付

美농무성 저소득층 치즈분배 성공하자

(워싱턴) 가난한 저소득자들에게 치즈를 무료로 분배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치즈무료제공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천만파운드의 버터를 무료로 분배할 것이라고농무성이 1일 발표했다.

농무장관 존·블록은 이날 금년말까지 5천만 파운드의 버터를 각주에무료분배할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농무성차관 리처드·링은 치즈무료분배량을 1억2천만 파운드 증가시켜 총2억2천만 파운드를 빈곤한 미국인가정에 나눠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연방정부는 치즈무료분배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있자 이를 확대하여 버터무료분배에 나섰으며 꿀, 터키, 납작한 귀리, 피넛·버터 등의 무료분배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분배치즈를 값으로 환산하면 3억2천만달러며 버터는 7천5백만달러에 해당한다.

巨 龜 莊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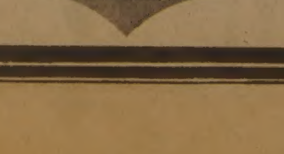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 일 공 연

〈영업시간〉 월·화·수: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 오후2시∼ 새벽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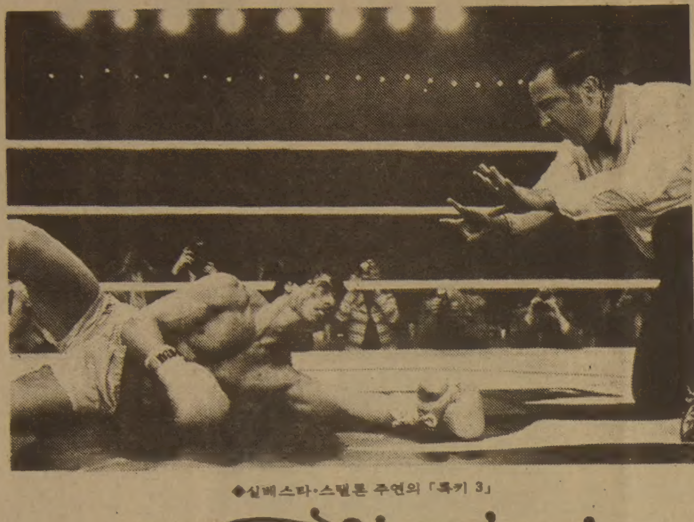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헐리웃 黃金期…여름放學학생을잡아라

큰재미 노린다



◆실베스타·스텔론 주연의 「록키 3」

올여름에는 풍성한 영화잔치가 벌어질것 같다.

공식적인 여름은 6월 21일부터 시작이지만, 올해의 헐리웃 여름은 다른해보다 일찍 찾아오는 것 같다.

헐리웃에서는 2주전에 개봉되어 1주일만에 1천만달러의 티켓세일을 올린 「야만인 코넌」의 힛트로, 이미 섬머 박스-오피스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있다.

헐리웃 주요영화사에서는 올해 5·6·7·8월을 위해 수십편의 새로운 영화를 대기시켜놓고있는데, 그중 40여편이 노동절이전에 개봉할것으로 알려졌다.

올여름을 위해 클린트·이스트우드, 로빈·윌리엄스, 헨리·윙클러등의 영화를 만들어낸 워너브라더스사의 영화 배급담당 배리·리어돈씨는 『올여름은 최고의 여름이 될것』임을 확신하고있다.

다른 주요 영화사의 간부들도 리어돈씨의 의견에 동감인데 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것.

만약 먼저 상영되는 영화들이 계속 힛트를 유지하면 7·8월에 개봉되는 영화는 고전을 하게 될수가 있다.

아뭏든 헐리웃에서는 올여름을 위한 수십편의 영화중 적어도 7~8개는 성공할 것으로 계측하고있다.

그중 라이벌영화사들까지도 훌륭한 영화라고 동의하는 영화들은 스티븐·스필버그의 두가지 작품.

하나는 스필버그가 MGM을 위해 제작한 공포영화 「폴터가이스트(Poltergeist)」, 또하나는 유니버살사제작 스필버그감독의 「E.T., The Extra Terrestrial」이다.

그다음으로 힛트가 예상되는 영화들은 실베스타·스텔론이 3번째로 링위에 오르는 「록키3」, 「스타트랙」의 후편인 「스타트랙2: 칸의 분노」, 관람객들을 비데오게임세계로 끌고가는 월트디즈니영화 「트론」, 클린트·이스트우드가 수퍼스파이로 등장하는 「파이어폭스(Firefox)」, 「할로윈」의 감독 존·카펜터가 만든 또 다른 공포영화 「더 씽(The Thing)」, 그리고 온가족이 볼수있는 영화 「애니」등.

올해 경제사정이 좋지않으니만큼 헐리웃에서는 가족이 멀리 휴가를 떠나는대신 그 비용을 근처 극장에서 써주기를 바라고있다.

영화를 즐기는 젊은 학생층이 방학을 맞는 여름은 일년중 헐리웃의 황금기.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통 2·3편만이 대힛트를 가져왔었다.

작년의 경우에도 「잃어버린 궤의 약탈자」 「수퍼맨2」가 영화가를 휩쓸었고(이 두 영화는 올해에도 재개봉된다) 그외에 「스트라입스」와 「아서」가 힛트를 했을뿐이었다.

이 영화들은 1·2주내에 힛트하지못하면 곧 영화가에서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올여름을 위한 영화중 가장 재미있는 부류는 힛트나 실패의 양쪽 가능성을 다 가진 영화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돌리·파톤과 춤추고 노래하는 버트·레이놀즈 출연의 「텍사스에서 가장 좋고 작은 색주가」.

헐리웃에서는 이 영화가 서부및 남부에서는 흥행하더라도 동부에서는관심을 끌지못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주요영화사, 40여편제작 "풍성한 잔치" 준비

「힛트」, 「고전」 엇갈린 예상속 "최고여름"

그러면 올해 관객들에게 외면당할 영화는 어떤것일까.

예상외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작년에도 헐리웃내의 여론조사에서는 「잃어버린 궤의 약탈자」가 매우 낮은 점수를 얻었으나 영화역사상 5번째 힛트영화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 성공율이 적을것으로 제작자, 배급자, 영화관대표들이 생각하는 영화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는 조금 음울한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미래의 차량이야기인 「메가포스」, 지난 금요일 이미 오픈한 「로드 워리어(Road Warrier)」, 알파치노가 스키드로우의 극작가로 등장하는 「작가! 작가!」등.

이밖에 스티브·마틴주연의 코미디 「죽은자는 격자무늬 옷을 입지않는다」와, 진·와일더가 길다·라드너와 공연한 「행키 팽키」도 뚜껑을 열어보아야 성패를 아는 영화들이다.

심각한 코미디들은 작가로 전환한 레슬러의 이야기로 로빈·윌리엄스가 주연한 「가프에 의한 세상」, 리차드·지르 주연의 「경찰과 신사」, 십대우상 마트·딜론이 주연한 「텍스」등이다.

이외에 「그리스2」 우디·알렌주연의 「한여름밤의 섹스 코미디」등도 귀추가 주목되는 영화.

한편 ABC모션픽처가 처음 만들어낸 영화 「사랑에 빠진 젊은 닥터들」도 올여름에 보여지게된다.

―〈독자의 광장〉―

의령사건과 장여인사건

이 유 식 (칼가리· 한인총연합회 부회장)

◆이유식 씨·

찬란한 햇빛이 온 누리를 비춰주는 깨끗한 아침이다. 이렇듯 티없이 맑고 밝은 아침일 수 있을까.

정신 없이 차를 몰았다. 나 자신을 의식할 때 이 도로는 TRANS CANADA 하이웨이임을 알았다.

끝없는 지평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이 대지!

나는 이 대지를 좋아하며, 교민사회 주변에서 필요 이상의 잡음이 일 때나, 더더구나 두고온 조국의 기막힌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작정 몇번이고 방향감각 없는 차를 질주시켜 보았다.

때로는 이 무한한 대지와 자원이 왜 우리의 조국에는 없을까? 조물주도 고르지 못하다는 푸념도 해보았고, 파아란 하늘을 쳐다보며 내 젊음을 눈물로 승화시킨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는 오늘 아침 5월의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시며 그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돌아왔다. 무엇인가 펜을 들지 않고는 같은 민족의 슬픔을, 안타까움을 달랠 길이 없을 것같다.

의령의 경찰관의 어처구니 없는 난동사건이 그렇고, 장여인의 사채놀이 파동이 또한 그렇다. 어찌하면 그 많은 무고한 양민들을 무차별 살상할 수 있을까?

티없는 시골사람들, 후덕한 마음들과 인심이 넘쳐 흐르는 시골 어느 양지바른 의령골짜기의 촌사람들 맑고 깨끗하게들 살아왔고, 살아갈 우리의 형제들, 그 멍하고 티없는 눈동자들에게 어찌 총구멍을 돌릴 수 있었을까?

온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다는 어느 소녀의 기사를 읽고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차마 그 기사를 다 읽을 수 없었다.

바꾸어 생각할 때 나 자신이 그 소녀의 입장이 되었다면, 아니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소녀의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해볼 때 뼈 마디마디가 저리고 아파왔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당국은 무엇을 했을까? 내무행정의 결함과 제도적인 모순을 탓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만이 책임추궁이 될 수는 없을 것같다. 전국 8만 내무공무원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히 역사적인 흐름이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어느 부분엔가 병들고 썩고, 고질화된 어떤 병폐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의 개선방법과 "비젼"은 없단 말인가? 좀더 원시안적인 면의 알뜰한 개혁은 있을 수 없을까?

그뿐이랴, 장영자란 여인은 어떤가? 어떻게 일개 아녀자로서 3천억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요리할 수 있었단 말인가? 자본주의 경제가 황금만능주의라 한들 그 황금을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재벌이란 몇개회사가 한 여자의 가냘픈 어깨와 손에 놀아나고 있었으니 그저 서글픈 마음 뿐이다. 자본주의국가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북미주의 생활도 8년이 되었지만 아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왜 우리의 조국과 민족은 유별나게 그 황금만능에 멍들어 가고 있단 말인가? 분수에 맞게 성실히 일한 결과로 축재를 하고, 그 축재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환원할 수 있는 풍토를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책 수립자들의 싸늘한 양심의 비판과 차원높은 개혁안을 갈구해 보며, 조국과 민족을 생각지 않는 기업인들이 있다면 이들도 하루 속히 도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무절제하고 사회기강과 민족의 앞날을 멍들게 하는 무리들을 엄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신록이 익어가는 5월의 태양 아래 내일은 조국에서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눈물을 흘리게 해 달라고 빌어보며 오늘도 이 방인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三國志 390

글·高羽榮·그림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임마누엘 연합교회
창립제5주년
기념예배

금번 본교회에서는 창립제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많이 오셔서 주님께 더욱 영광드리는 자리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6월13일(주일) 오후 2시30분
◉장 소 : 임마누엘연합교회 63 DUNBLAINE AVE. TORONTO.

임마누엘연합교회 교우일동

야유회에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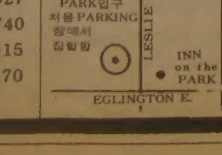
금번 상록회의 발족을 자축하여 조촐한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록회는 가까운 Winnipeg에서 오붓 하게 살다가 이곳 토론토에 와서 친교와친목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순수한 친 목회입니다.

Winnipeg에 사시던 분이나 관련이 있으신분 모두 환영합니다. 만약 참석 못 하시는 분은 상록회 주소록을 작성할 예정이오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6월19일(토) 오전11시
장소 : SUNNY BROOK PARK (At Eglington E. at Leslie St.)
● 점심은 일절 상록회에서 준비함.
연락처 :
김마리아 782-4027
김 순 옥 531-8740
민 복 자 588-1915
이 경 숙 481-4170



사 과 문

5월11일경 한국일보 기사중에 세종한글학교 새 교장단과 이사진 명단에 총무 : 양길웅씨가 빠진것과, 이사 : 김광석씨는 본인과 상의없이 이사명단에 넣은데 대해서 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세종한글학교 이사장겸
학부형회장 박태식 드림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한국일보
理想은健全한新聞

安企部長·外務장관 更迭

安企部長 盧信永·外務長官 李範錫씨 任命

″李·張사건 情報不在에 引責″

全斗煥 대통령은 2일 兪學聖국가안전기획부장의 辭表를 수리하고 후임에 盧信永외무부장관을, 외무부장관후임에는 李範錫대통령 비서실장을 각각임명했다。대통령비서실장후임은 이날 입명되지 않았다。李雄熙청와대 대변인은 이날상오 安企部長과 외무부장관의 更迭을 발표하면서 『兪前안기부장은 一身上의 사정으로 극히최근에 사표를 제출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결정등 後續人事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安企部長과 외무부장관의 更迭은 5·21대폭改閣이있은지 12일만에 전격적으로 취해진것이다。

兪前안기부장은 지난80년 7월취임、1년10개월在任했으며 이날상오 靑瓦臺를 방문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이날 安企部長경질에 관해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에 관한 정보不在에 대한 引責人事로 본다』고 설명하고 『외무부장관 교체는 韓日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외교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위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기위한것으로 분석된다』고말했다。

◇盧安企部長略歷 ▲平南江西출신·52세▲서울法大卒▲美켄터키大學院卒▲高試行政科합격▲외무부邦交·條約과장▲駐泰參事官▲外務部亞洲국장·기획관리실장▲로스앤젤레스總領事▲駐印大使▲外務次官▲駐제네바대사▲외무장관

◇李외무장관略歷 ▲平壤출신·57세▲高大卒▲美조지워싱턴대대학원修學▲世界赤十字社駐韓연락대표▲외무부국제기구과장▲駐유엔대표부참사관▲外交安保硏究院연구위원▲외무부儀典室長▲駐튀니지대사▲南北赤十字회담수석대표▲駐印度대사▲통일원장관▲대통령비서실장

◇밝은表情의 外務部 巨額어음사건의 餘震은 뜻밖에 한국外交의 司令塔을 바꾸는 결과를낳았다。그러나 이交替는 引責이 아니라 前任장관의 경우 국가안전기획부장이라는 새重責을 맡게되고 新任장관역시 근19개월만에 親庭에 돌아온 격이어서 떠나는얼굴이나 돌아오는 얼굴、그리고 이들을 送迎하는 외무부직원들 모두가 밝기만 하다。사진은 前任인 盧信永안기부장㊧과 新任인 李範錫외무장관이 離就任式이끝난뒤 장관실로 향하고있다。뒤는 盧載源외무차관。

情報總帥 직업外交官 기용
국민의認識 一新위한 배려

해설

情報總帥인 安企部長의 更迭은 李·張부부사건과 관련돼 이를 사전에 認知하고 추적하지못한 책임을 물은 引責인사로 볼수있다。특히 이사건을 다룬 임시국회가 끝난직후 安企部長을 경질한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民意를 수렴한 조치로 평가된다。국회에서 與野의원들은 정부가 막강한 정보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李·張부부사건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었다。

李·張부부 어음사기가 정보不在에서 더욱 사건이확대됐다는 점에서 安企部長의 경질문제는 지난 5·21改閣의 때도 擧論됐던것으로 전해지고있다。

安企部長의 경질에서 직업외교관출신인 盧信永외무장관을 후임으로기용한것은 異例的인 人事로 볼수있다。이는 과거와같이 대부분 軍출신인사가 아닌 직업외교관출신을 정보책임자로 앉힘으로써 安企部에 대한 국민의인식을 一新하기위한것으로 분석된다。또 오늘과같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의 협력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때문에 국제정보의 효율적인수집과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경험을 쌓은 직업외교관출신을 정보책임자로 기용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없지않다。

이번인사에서 외무부장관 후임에 李範錫 대통령비서실장을 등용한것은 교착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韓日經協문제등 당면한 외교현안에 突破口를 마련하고 외교의活性化를 꾀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실 신임李장관은 그동안의 외교경력을통해 적극적이면서도 협상의 名手라는 평가를 받아왔기때문에 그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있다。

특히 80년대는 통일기반조성의 연대라는점에서 南北赤회담대표와 통일원장관을 지낸 그의 통일외교力量이 기대되고있다。

이번 安企部長의 경질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꾸겠다』고 밝혀온 全斗煥 대통령의 人事철학과도 脈絡을 같이 하고있다。따라서 政界일각에서는 李·張부부사건과 관련이있는 부총리와 재무장관의 경질가능성도 없지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특히 全대통령도 지난 5·21改閣때 『거액어음부도사건에 관해서는 부총리와 재무장관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지만 사태의 뒷수습이 책임을 지는 일보다 씬 중요하다』고 밝혀 사태수습후의 이들 각료의 경질가능성을 비쳤고 民正黨의 의원들도 이들의 引責을 주장하고있어 그 가능성은 높은것으로 診斷된다。다만 국회에서 이들 각료의 해임안이 부결됐기때문에 국회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없지않다。또 政界일각에서는 問責인사와 함께 民心수습을 위한 새로운 조치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尹國炳 기자】

″「撤軍」·「敗北」擇一하라″
유엔通해 메시지 英、아르헨에 最後通牒

【런던1日UPI=聯合】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은 1일 영국군이 포클랜드의수도 포트스탠리에대한 최종공격을 개시하기에 앞서 아르헨티나에대해 포클랜드로부터철수할 마지막 기회를 줄것임을 제의했다고 영국정부소식통들이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앤더니·파손즈駐유엔영국대사는 이날 유엔에서 아르헨티나측에 『포클랜드에서 철수하거나 아니면 패배를 당하거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대처수상과 戰時내각의 메시지를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英國정부는 아르헨티나가 이같은 제의를수락、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에대해 거의 아무런 낙관도 하지 않고있으며 따라서『다음단계는 포트스탠리에 대한 전면공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추가 引責토록 黨內 民心수습特委 구성도″
어제 民正議總

民正黨은 2일 상·하오黨職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李哲熙·張玲子사건과 관련、野黨이 공동으로제안했던 國政조사特委 구성결의안과 각료 解任案이 부결됨으로써 빚어진 政局梗塞을 타개하기 위한 수습방안을논의했다。

이날 議總에서 의원들은 『각료解任案의 否決이 곧再信任이 아니며 국민은 행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면서 實物경제팀의 추가 引責등획기적인 時局 수습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議總에서 朴權欽의원은 『검찰수사결과는 국회가 國政調査權발동을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하고 『黨內에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民心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주장했다。

金鍾仁의원은 『각료들은 제5공화국의 지도이념을 이해하지못하고있다』고 말하고 특히 국민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지않고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정치적決斷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尹吉重의원은 『수습의 결단을 빨리 내려야한다』고 촉구했고 洪性宇의원은『民正黨의 건의가 정부에 반영되지않고있다』면서 수습책의 강력한 건의를 촉구했다。

民正黨은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이를토대로 당직자들이 民心수습책을 마련하고 이같은 당의 방침을 3일저녁의 黨·政협의회에서 정부측에 전달키로했다고 金璐泰대변인이 밝혔다。

한 고위당직자는 議總이끝난뒤 『이날 의총에서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각료추가引責여부와 야당과의 정치적대화를 위한 주요정당 간부회담 개최등의 방안을 검토、정부측에 촉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全大統領과 面談제의
梗塞政局수습 誠意를
民韓·국민 관련長官 즉각解任거듭촉구
李代行 柳총재

◇柳致松총재

柳致松民韓黨총재는 2일 『최근의 時局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만나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정치범의 석방、정치被규제자解禁、국회와 언론의 활성화등 모든 민주적 개혁문제를 포함하는 정치적 收拾방안을 협의할 용의가있다』고 대통령面談을 제의했다。

柳총재는 이날상오 중앙당사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제의하면서『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難局으로 보고 현안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한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黨은 오늘의 국가적인 위기를 수습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의 책임을물어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引責경질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사건의 진상과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하며 사건자체에대한 정치적 책임과함께 사건을 糊塗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한다』고 말했다。

柳총재는 특히 『이번 사태에 따르는 불신과 혼란이 어떠하리라는것을 정부는 알아야할것』이라고 지적한뒤『사태수습을 못할경우에 따르는 破局의 책임 또한 전적으로 정부에 돌려질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 『책임을 지지않는 정부나 民意를 代辯하지않는 국회는 이미 그존립의 근거를 상실했다고 보아야한다』면서 『국가적 難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야당은 머리를 맞대고 難局수습방안을협의해야하며 입으로만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實質的으로 눈에 보이도록 쫓것은 쫓고 갖출것은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李萬燮부총재

柳총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국회와 대화를통해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야당이나 국민이 갈길이 무엇인가는 自明한일』이라고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아무리 이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에대한 비난이 쏟아진다해도 이에따른 破局이 非민주적인 방향에서 發散되거나 폭발돼서는 안된다는것이 나와 우리당의 신념』이라고소신을밝혔다。

한편 李萬燮국민당부총재도 2일 『오늘의 국내상황은 정치·경제·사회등 모든분야에서 전례없는 국가적위기를 맞고있다』고 지적하고『집권여당이 국회의기능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결과로 인해빚어지는 여하한 政局梗塞의 책임은 마땅히 정부·여당이져야한다』고주장했다。

李부총재는 이날상오 黨舍에서 기자회견을갖고『정부는 失墜된 위신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李·張부부사건의 진상을 밝히기위해모든 방법을동원하겠다는 당초의 약속대로 이사건의 배후인물과 정치권력과의 결탁여부를 하루빨리 국민에게 소상히밝혀 의혹을 씻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록 국회에서 관계국무위원 不信任案이 多數에 의해 부결되었으나 이사건에 책임이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총리·재무·법무 장관을 즉각해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위해 주변에대한 정리를 과감히 단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오늘 靑瓦臺서 國務회의 召集
時局관련 광범위對策논의

정부는 2일하오 중앙청국무회의실에서 劉彰順국무총리주재로 국무위원 全員이참석한가운데 긴급간담회를 열고 최근 李哲熙·張玲子사건에따른 최근의 時局과관련한 일련의 時局수습방안과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3일상오9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가질예정이다。

그런데 2일 국무위원 긴급 간담회에서는 李·張부부사건을 다룬 국회가 開會된이후 政局의 움직임을 검토하고 時局安定을 위한 경제각료등 일부각료의 사퇴를포함、광범위한 對策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民正黨은 3일하오 劉총리와金埈成부총리、羅雄培재무장관등이 참석하는 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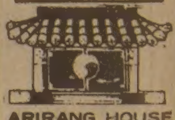
「점수」가 어떻게 나올는지…

地平線

牧民心書를 보면 손님을 너무 후하게대접하면 낭비이고、너무 박하면 기쁨을 잃는다는 대목이 있다。사람을 대접하고、대접받는것도 정도에 알맞아야 禮라는 뜻이다。▼한데 결혼식을 두번씩이나올려 호화판 파티까지 연 李·張부부의 결혼식 참석자 명단이 국회에서 공개돼 장안의 화제로 번져버렸다。賀客이야 무슨죄가있느냐、명단공개는 인권유린이다、아니 의혹의대상이 아니면 국회의원만이라도 스스로 신상발언을 했어야 옳지않았느냐는등 시비도 있으나 세상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만은 틀림없다。한글인데다 직업이제대로 안적혀있어 정확한것은 모르지만 그속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몇명있고 전고위관리、전은행장、기업인외에 종교인이름도 몇 보인다。▼전남소재 대흥사에서 이미 난해 1월에 佛教式으로 혼례를 치렀으면서도 올 2월에 漢南洞사파리클럽에서 다시 호화판 결혼식을 올렸으니 그 동기부터가 아리송하지만 문제는 신성한결혼식이 한 범행배경으로 이용된데있다。또 두번째 결혼식인줄알고 참석한분이 없지도 않을것같다。비디오 테이프까지 동원된 이결혼식의賀客은 1백22명。환갑나이의 총각신랑과 財力·미모를지닌 30代이혼녀의 결혼식에 초청되지못해 안타까와했던 인사는 혹시 더 없었는지 궁겁다。▼과거 세도가의 자녀결혼식을 이용해 금덩어리나 뇌물을 줌으로써 나중에 한밑천 잡으려던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혼례도 그렇지만 지도급인사집의 장례때도 그런사람들이모인 전례는있다。경우는 다르지만 李圭光씨 아들결혼에 뒤늦게나마 전달한돈이 한장(1억원)이라는것도 실은 상상키어려운 금액이다。아무리 척분사이라도 너무 큰 돈 같다。최근에는 가정의례준칙대로 결혼식이 간소하게 시행되는 줄 알던 사람들로서 놀랄수밖에 없다。▼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못지않게 중요한것이 公益이다。하나 사파리클럽결혼식엔 옛적 부터 교분이 두터워 참석했다가 이번에 이름이 쳐들린 사람도 없지는 않을것이다。결혼식뿐아니라 아이 돌 돌때나 생일、환갑등 慶事날에 이웃과 친지、친척을 찾아 정표를 푸는것은우리의 美風良俗이다。이번사건으로 주눅이나 들지는 않을는지、위축현상은 있어 안되겠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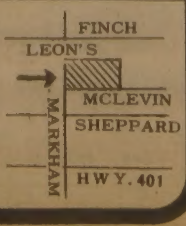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HOLE SALER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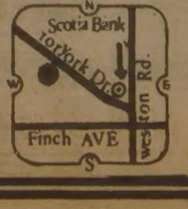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대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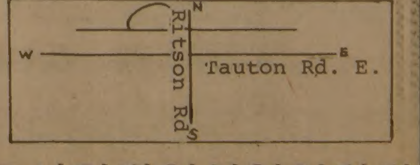


공고

아버지날을 계기로 하여 당협회에서는 골프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가하여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6월19일(토) 11시 30분
◉장 소: KEDRON DELLS GULF COUNTRY CLUB
◉연락처: 666-1727
회장 이영민

1 Mile N. of Taunton Rd.



오샤와한인실업인협회

"보고듣는能力 부족했다"

임시國會결산 民正 議員총회

民正黨은 2일하오 중앙당사에서 제113회 임시국회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時局수습방안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임시국회가 開會되던 28일 열띤 토론을 벌였던분위기에 비해 熱度가 떨어지지않는가운데 진행된 이날 모임은 行政府에 대한 성토가 서슴없이 메아리쳤고 難局에단결이 강조되는 가운데 時局을보는 냉철한 자세가 요구되기도 했다.

▲李敏濬대표위원=우리는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최선의 방법으로 극복했다. 갈등을 느끼면서도 정해진 방향으로 노력해서 아무런후회가 없다. 스스로 克己하면서 갈길로 매진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世稱 張여인사건으로 우리가 많은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중요한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제5공화국의도덕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不正과 결탁하지도 않았고 정치자금이 정당에도 정권에도 개인에게도 感染되지 않았다. 所重한것들은 民正黨은 정당성을잃지않았지만 도덕성만으로 국가를 경영할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알았다. 금융능력이 없고 정보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볼수있는 능력, 들을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보완하면서 극복해야겠다. 우리는 지금는 압박과 어려움을 견디어야한다.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정부에는채찍질도하고 도와주면서 앞으로 나가야한다. 건설적 전진적 의견을 기탄없이내어달라.

▲權翊鉉사무총장(黨務보고)=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당직자들의 지방순회는 물론 귀향활동과 정치연수원교육을 통해 對국민홍보를 강화하겠다.

"行政府 믿을수없어"

廉恥아는 閣僚라야 民心수습 可能

時局수습에 勇斷을"

▲李鍾贊총무=이번 국회에서 黨命과 黨論에 복종, 一糸不亂하게 통일해주어 고맙다. 이번 국회는 어려웠지만 단결과 용기로 극복한 국회였다. 이단결과 용기가 우리가 세운 수습방안의 기초가 되어야겠다. 이제는 갈등과 걱정을 전환시켜 民心을 휘어잡는데 一路 매진해야한다.

이같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는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우리黨에 용기와 자신을 주는것이 어려웠다.

張여인사건은 院內에서는 마무리되었으나 院外에서 攻防이 다시 시작되고있다. 진로 성토에 건설적의견을 말해달라.

▲崔明憲의원=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본의아니게 개인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보니 피해를 주어 미안하다.

▲朴權欽의원=과거 野黨을 했던 사람으로서 中情次長을 지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것은 나로서도 잘못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 大團合을 지향하고있을때이고 선거구인 慶州에 李哲熙가 유드호스텔을 갖고있는 인연으로해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黨에 누를끼친데대해 죄송하다. 앞으로는 公人으로서 각별히 몸조심을 하겠다. 나자신이 맺고끊는 성질이없어서 저질러진 것이다. 이것은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겠다.

張여인사건은 維新시대의 누적현상이 表出된것으로 維新시대를 과감하게 단절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지않았을 것이다. 말로만 하는 홍보보다 이제는 행동을 보여야 국민이 믿는다. 행정부는 믿을수 없다. 이번 검찰수사 결과 보고는 國政조사권을 발동해달라는 보고처럼 보였다. 黨內 특별기구를 만들어 많은 의원이 참여, 여러가지 時局수습 방안을 만들자.

이번 국회에서 관계장관해임안을 부결시켰지만 그사람들을 재신임한것은 아니다. 그사람들로서는 結者解之가 되지않는다. 人事재고를 건의해달라.

▲宋志英의원=(中國詩經을 인용하면서)「내마음은 돌(石)이아니다. 돌돌굴릴수도 없다. 내마음은 돗자리가아니라 돌돌 말수도없다」는것이 지금 나의심정이다. 사람이 원래 모질지 못해서 누가 부탁하면 祝辭나 主禮辭 또는 테이프 끊는것을 많이 하고 다닌다. 문예진흥원장과 국회불교신도모임인 正覺會 회장으로 있기때문에들어준 부탁이 더많다. 이걸가지고 왜 떠드는지모르겠다. 이일로 黨에 조그마한 누를 끼쳤다면 미안하다.

▲李春꾸=단순히 결혼식을 축하 해준것이 불명예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그것을 허물하는 世態가 원망스럽다.

▲洪性宇의원=이 사건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黨이 정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진것이 무엇이며 黨優位論은 무슨 뜻인가.

올바른 進言과 불평의 차이는 무엇인가. 黨지도부에 묻고 싶다.

▲金鍾仁의원=우리는 경제안정을 명분으로삼아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1、2년동안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

경제非理를 건드리면 경제가 흔들린다고해서 손을대지 못했다. 大기업과 私債、금융의 非理를 그대로 방치한데다 긴축정책을 세웠다. 張여인 사건은 경제정책의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이런 경제정책이 연속된다면 경제안정이 성공될지 의문이다.

實物經濟팀은 3月 景氣회복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데서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온다. 한자리숫자의 물가억제는 다른분야의 주름살이 가지 않고서는 실현되지않는다. 大기업、중소기업、근로자 모두 불만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잘 잘못을 털어 놓아야하며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정리할것은 해야 한다.

경제경책에 대한 정치적용단을 내려야 할때다.

경제非理를 척결하고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는 계속 어려워진다. 우리는 책임정당이다. 국회에서 장관들이 답변할때 民正黨의정강정책을 얼마나이해하고 답변하고 있는가. 상당수의 장관들은 제5공화국의 지도이념을잘이해하지 못하고있다.

▲尹吉重의원=지금이 시작이다. 당면문제를 빨리 해결해야한다. 수습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하고 회기적조치를 취해야 民心이 수습된다.

▲李春꾸=中·長期대책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당면문제에 대한 의견을 축소시켜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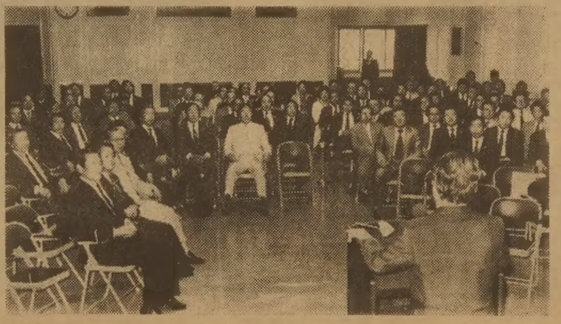
▲李致浩의원=議總에서건전한 의견을 내어 黨論을 집약하자. 우리모두 時局수습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 이를 모아 대처방안을「갖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

▲李春꾸=時局수습의건을 수렴하자는 것은 야당당수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정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의 소리에 입각하여 수습방안을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高見피력이 고마우나 1백50여명의 의원모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갖지못해 죄송하다.

▲沈明輔의원=총무단의일원으로서 정부각료에게 불만이 많다. 정부각료들은 염치가 없는것을 보았다. 각료에게 염치교육을 시켜야한다. 民正黨이 정부가 하는 일에 無限책임을 지는 이 마당에 당지도부는 일부 정부각료들에게 염치교육을 시켜달라. 염치를 아는 각료라야 民心수습도 할수있다고 본다.

▲洪性宇의원=우리가 黨優位라는 말을쓰고있는데 정책과 시국수습방안이 맞설때 야만 黨優位가 되는것이다. 의원들가운데 자질이 있는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 자질들을 살려 합리적이고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한다.

▲李春꾸=오늘의 기탄없는 高見에 감사한다.



◇2일하오 중앙당사에서 열린 民正黨의 의원총회는 『時局수습을 위한 정치적 勇斷이 있어야한다』는 결의와 함께 행정부의 각료들에 대해 責任을 추궁하는 성토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記者의 눈

議政의 限界性

5일간의「李哲熙·張玲子사건 국회」는 波動이었던만큼 끝나고서도 개운치가 않다. 與野모두가 그렇다. 국회는 끝났는데도 국민의 눈총은 여전히 의사당을 주시하고있다.

『勝者도 敗者도 없다』고 내뱉듯이 말하고 마지막 본회의장을 떠나던 한 選良의 말은 모두의 답답한 속마음인것 같다.

물론 국민의 怨氣와 불만 그리고 의구심등을「큰소리」로 代辯 전달했다는점은 엄연하나 문제는 時局, 또는 政局의 梗塞을 풀어나가질 못하고 與野간의 갈등을 더욱 노출시켰다는데에 있다. 의원들은 대체로 더이상 표현할 極化의 形容詞가 없다는 이번사건에있어 자금행방、背後의 疑惑、과연관계당국과 책임자들이몰랐었던가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벗기질못했고 野圈이제기한 국정조사권발동、관계국무위원解任案등이 否決된데서온「議政의 限界性」등에 與野모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錯雜한것같다. 장시간 호된紅疫을 치르고「잘해보자」고 연 국회였는데 말이다.

『可 1백18、否1백48표…』1일 밤10시 마지막 본회의에서 丁來赫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 特調委구성결의안의 否決을 선언한 표갈림숫자다. 與와 野圈이 한명의 이탈없이 절묘하게(?)표가 갈렸다. 多黨制下에서 나온「표가름의 工學」이었다. 與인 民正黨과 民韓、국민당、群小 무소속연합인「정치無色」의 議政同友會가 똘똘 뭉친「野圈」의 대결이었다.

議案표결에서 실상 이런 현상은 적지않으나 문제는 국민의 초관심사인 사건을 규명하자는 特調委구성결의안이라는데서의원들의 생각은 더욱 착잡한듯 싶다.

이 한순간의 결판을 위해 與野는 서로 설득과 회유를 하며 그 숨한시간 政局을 긴장시키며 진통을 겪어왔으니….

與野는 엄청난사건의 수습을위해 처음엔 문제를푸는 방법에 접근을 하는듯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서로간의 명분과 속사정、黨略、또다른 變數등에 의해 틈만 더 벌려 놓은적이 되었다.

결국 야당측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 與黨은 法대로 票의對決로 결판을 냈다.

반면「特調委」와 각료引責결의안부결이 自明하다고 생각한 野黨측은 막판에「變則」을 썼다.

民韓黨은 正攻으로의 원칙이외에 막판에 의원직 사퇴로까지 나온 非常議總、총재직을 걸겠다는 黨총재의「중대決心」등을 내놓고 충격효과를 시도했으나 결과는허사였다.

張여인사건을 규명코자 한 의원들의 소리는 전례없이 높아 국민의 분노를 대신했다는 점에는 異議가 없다. 본회의에서、常委에서 의원들은 悲憤도 하고 정부를 준열하게 공격하고 문제를 파헤치느라 진통을 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제대로 문제를 파헤치기엔 力不足이었다. 손으로 잡은 정보나 자료가 희박했다. 그러니 신문기사와 귀로 흘은 정보 또는「流言」을 들이대며 추궁할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에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은 지난번 財務委답변을 벗어나지 못하는등 각료들의 답변은 신통한게 거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국회를 壓倒하려는듯(?)한 對應策을 이따금 보였다. 특히 鄭致根법무장관의 高壓的인 자세는 與野의원들의 憤怒를샀다. 결국 기껏 새로나온것이 主犯을 張玲子에서李哲熙로 바꾼 법무장관의 본회의 답변과 法司委에 제출된 李·張부부 결혼식 賀客명단이었다. 배후를 밝히고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생각해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그 명단은 열람정도에 그친채 정부에 반납됐다. 人的사항이 없는 한글로 된 裸身과 같은 명단을 받아든 의원들의표정은 可觀이었다.「흥미」이 외에 딴 소득이 없는 결과가 된셈이다. 배후추적보다는 단순히 의례적으로 참석한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어색하게 된셈이됐다. 더구나 名單과 결혼식광경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常任委서 제시하겠다」↓「1일 12시에 法司委제시」↓「1일하오」가 결국「5시가 넘어서야」제시한 鄭법무장관의 食言 違約도 국회輕視자세의 한단면을 보는것같아 씁쓸하기만하다. 더구나「절대로거짓말하지 않는다」「검찰을 믿어달라」면서 국회에와서야 사건主役을 바꾸고 오히려 의원질의에 強硬對應으로 나온 그의 태도에 의원들의 叱責은 당연하다고 봐야할것이다.

정치는 물흐르듯 가야한다고 했다. 水路가 막히면 물이 썩는다. 적어도 이번 국회에선 流水를 기대할수는 없었지만 與野간에 좀더 진실된 대화와 노력으로 서로 주고받는 지혜가 있어야 했다.

서글픈 사건때문에 괴롭고 슬픈 노래를 부를수 밖에 없었던 국회라 議政의 生氣는 어차피 기대할수 없었지만 국민의 소리를 안다면 좀더 겸허한 마음과 自省이 필요했다는게 방청석에서 느낀 소감이다.

본회의장에서 議席을 내려다보고 한탄한 사람들도 적지않다. 지난30일 본회의의 경우 하오의 대정부질의와 정부답변시 본회의장엔 在席의원의 절반도 보이지 않았다.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건에 귀를 기울이는 인내가 너무나 부족했다.

나의 얘기가 중요하면 남의 얘기도 열심히 경청해야하는게 기본자세다. 연일 피곤한 탓도 있었겠지만 권태가 행여 慢性으로 싫증이忘却으로 간다면 議政은 황량한 광야와 크게 다를바 없다.

이번 국회는 또다른 교훈을 느끼게 했다. 與野고간에 寡頭的 지배체제는 정당이갖는 한 屬性이지만 의원들이 소신없이「上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볼때、반대로 上層이 의원들의 소리를 외면할때 정당운영은 硬直化되고 결국 議政과 政局을 梗塞·교착시킬수도 있다는 교훈이다. 국회직전 국정조사권발동을 막으면 문제가 있다고 異議가제기된 民正黨議總이나 임시국회중自省의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民韓黨 비상議總은 그런 점에서 黨內민주주의의 일면을 일깨워준 例였다.

그러면서 결코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국회가 비록 국정조사권발동에 실패하고 사건규명엔 미흡했지만 거기에서 던져진 소리、특히 여야의원들의 절절한의견들은 쉽게 잊을수 없을것이라는 점이다. 그소리는 의사당너머로 反響을 일으켜 사건수습과 문제의규명을 촉진시킬것이란 가능성이 정부내외의 어떤變化에서 이미 암시되고있다.

【趙聖鎬기자】

세계 景氣회복策 논의

레이건, 어제 유럽登程

歐洲·美 安保결속도

【워싱턴2日=李文馥특파원】레이건美 대통령은 2일상오 10일간의 유럽순방길에 오른다.

그는 파리에서 7개국경제정상회담에 참석하며 이어 본에서 나토동맹국들과의 일련의 회담을 갖게 돼있다.

이번 순방일정이 말해주는 것처럼 레이건의 이번 유럽여행의 목적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회복과 소련을 정점으로한 東歐진영과 대결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안보적 결속을 다짐하려는데 있다.

이 두가지 의의이외에도 레이건 대통령 측근들은 이번 순방이 취임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유럽인에 대한 대통령자신의 이미지 정립에도 뜻이 있으며 그의 지도력、철학、견해들을 남김없이 보여줄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의욕과 결의에 찬 동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제정상회담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것이 될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실 레이건 대통령은 실업의 증가、무역고의 퇴조、이에따른 보호주의의 대두등 전례없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속에서 경제정상회담에 임하게되며 따라서 미국의 高金利、달러화의 강세에따른 유럽의 환시장의 불안등이 중요 논의의 대상이 될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의 고금리에대해 유럽국가들의 관심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경기침체나 실업증가 보다도 미국의 고금리야말로 자신들의 경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라고 두려워 했으며 경기를 부양시킬 새로운 투자도 이 고금리로 인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분석해 왔다.

레이건 대통령의 출발에앞서 미국신문들은 이번 경제정상회담이 표면화된 의제들 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등 강대국 정상들 사이의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접촉가능성이 충분히있으며 이기회를통해 국제정치문제가 광범위하게 교환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신문들은 그 중요한 문제가 포클랜드사태를 비롯해서 중동문제 東西진영의정치제반문제가 포함될수 있으며 방위전략 軍縮문제에서 데탕트까지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수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상회담에 이어 레이건 대통령은 본에서、나토회원국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는데 이 회의의 가장큰 주제는 오는 29일 제네바에서 시작될 美·蘇전략무기감축회담과 스페인의 나토가입문제등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鄧小平-美베이커議員 회담 中共黨부주석 鄧小平과 美상원공화당원내총무 하워드·베이커의원이 1일 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하고있다.【北京1日UPI聯合=聯合】

臺灣、美서諜報공작

72년부터、美·中共관계 沮害위해

【워싱턴2日AP=聯合】臺灣의 첩보요원들이 소련의 KGB(비밀경찰)나 할수있을만한 방법으로 美國의 국가안보조직에 침투、미국과 중공간의 관계를 저해하기 위한 공작을 펴 왔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1일 고위 미국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신문은 臺灣정부가 미국이 중공에 대한 문호개방을 모색할 무렵인 지난72년이래 비밀첩보공작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이란貯油시설 大破

이라크機「하르그」島폭격

【베이루트1日AP=聯合】이라크전투기들이 1일 페르시아만의 하르그島에있는 이란의 주요석유선적장을 폭격、저유시설들을 대파했다고 이라크군사령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측은 이같은이라크측 발표를 부인하면서이란군이 이라크제트전투기들의 공습을 물리쳐 아무런 손실도 입지않았다고 말했다.

양측발표는 서로 상대방군이 국경지역의 주요민간 거주지역에 포격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란관영 IRNA통신은 이라크군이 지난28일 호람샤르에 미사일공격을 가해 한사원에서 예배를보던 이란군11명을 죽게했다고비난했다.

이 통신은 또 이라크군포대가 샤트알아랍수로 동편에 위치한 精油도시 아바단에 포격을 가해왔다고 밝히고 이같은 이라크군공격에대한 이란의 인내심이 한계에달했다고 경고했다.

이 통신은『이라크軍공격에 대한 이란軍의 인내가 얼마나 지속될수있겠는가』라고 반문했는데 관측통들은 이것이 이란군의 對이라크越境침공을 의미하는 새로운 위협인 것으로 풀이했다.

바웬사 蘇접경軟禁

【바르샤바1日聯合=聯合】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는 현재 폴란드남서부의 소련국경에서 얼마 떨어지지않은 알라모프의 한 사냥막에 군인들의 경비하에 연금되어있다고 이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일 말했다.

유레코바마을에서 약1.5km떨어져있는 폴란드에서 가장 외진 지역중 한곳인 알라모프를 여행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곳을 지나치다 입구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특별허가증을 소지하지않는한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外信안테나

不侵條約회담 再開 印·파키스탄 합의

인도와 파키스탄은 1일 긴장완화노력의 일환으로 지난2월이후 무기연기된 불가침조약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인도와 파키스탄외무성이 동시에 발표했다.【뉴델리=AP】

印尼에 콜레라만연

인도네시아 西자바의 반둥에서 지난5월이래 3백86명의 콜레라환자가 발생、이중 5명이 사망했다고 이지역의 보건책임자인 A·아비쿠스나박사가 1일 밝혔다.【자카르타=AP】

슈미트 84년재출마

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은 2년후 수상직에 재출마할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서독의 빌트지가 1일 보도했다. 빌트지는 슈미트수상이『나는 84년 수상직에 출마할 기본적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것으로 인용보도했다.【함부르크=AP】

教皇 글래스코訪問

영국을 방문중인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1일 新舊교도간의 대립이심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市를 방문、26만명의 가톨릭교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市교외의 벨러휴스턴공원에서 옥외미사를 집전했다.

2일간의 스코틀랜드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요한·바오로2세는 헬리콥터편으로 벨러휴스턴공원에 도착、열광하는 군중들에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통일을향해 종교적 異見을 극복하고 다른기독교들과「손을 맞잡고」나가자고호소했다.【글래스고=聯】

이스라엘 特別閣議 對美관계 집중논의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1일 미국의 對요르단 F16전투기판매계획과 관련、특별각료회의를 소집하고 美國과 이스라엘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요르단에 대한 이동식 地對空미사일및 F16전투기판매계획에 대처하는 이스라엘정부의 입장과 對美관계가 집중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예루살렘=AP】

◇「먼로」56회生日카드 31일 故마릴린·먼로의 56회생일을 하루 앞두고 그녀의 요람에서 먼로를 닮은 西獨 센츄리의 베티나·리빈스키양이 커다란 생일축하카드를 들고서 키스를 보내고있다.【할리우드31日聯合=聯合】

메아리

여름 보너스

「탐욕이 강하면 재물에 목숨을 걸고 義烈한 사람은 명예를 위해 생명을 걸며…평범한 일반인들은 생활을 아끼고 그것에 얽매인다」옛 중국의 漢나라 賈子의 분석이다.

영국의 러스킨은 탐욕을 몹시 멸시했다.「세상에서 만가지 애정이 예술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돈에 대한 애정만은 결코 그 원인이 될수 없다」고 꼬집었다. 탐욕에 빠져들 틈도 없는것이 봉급자들의 삶이다. 가장 평범한 일반인의 범주에 속한다. 하루 하루 알뜰하게 꾸려 가기에 바쁘다.

생계를 기본급에만 의지하는 샐러리맨들에겐 보너스란 말부터가 매력을 일으키게 한다. 휴가를 앞둔 초여름、추석、연말께가 되면 직장에선 으레 상여금이 화제로 떠오른다.

라틴어로 보너스의 본래 뜻은「좋은것」. 일종의「플러스 알파」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여금을 받아 들고「이게 웬 떡이냐…」싶게 반기는 봉급생활자는 없을줄 안다. 기본급과 동일시 하거나 그 연장、또는 보완으로 여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이면 저축으로 돌려지고 그렇지 못한 사정일땐 생활의 적자구멍을 메우는데 요긴하게 쓰인다.

보너스왕국이라고도 할수있는 일본에선 저축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일본 東海은행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보너스는 저축、소비、빚갚기순으로 쓰여진다고한다. 특히 저축은 미혼보다 기혼자쪽이 많다.

오랜 불황에 시달리면서도 국내기업들은 올여름 보너스를 많이 주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보다 평균 26%쯤 높여서 지급할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생산성본부조사로 밝혀졌다.(한국일보 2일자 4면)

임금인상이 10%이내로 묶인 현실에서 한줄기소나기를 맞는듯한 느낌이 든다.「여대의 돈바람」이 세상을 휘젓고갔지만 평범한 보통사람들에겐 그와 가족의 생활이 가장 값있고 귀중하다.

여름보너스가 건조한 생계를 촉촉히 적셔주었으면 좋겠다. 내집마련、자녀학비、노후대책등 소박한 꿈이라도 여기에 담아보는 것이다.

근로에서 얻어지는 보람은 샐러리맨만이 간직할수있는 자부다. 이 자부심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 가야 하겠다.

海外토픽

영양실조로 눈멀어

★印度어린이 年3만여명

인도남부의 타밀나두주에서 매년 3만명이상의 5세미만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때문에눈이 멀어가고있다고.

이같은 사실은 인도식량영양국과 타밀나두주정부가 각각 인도 마드라스에서 최근 주최한 별도의 2개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연사는 타밀나두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80%를、부자들은 45%를 각각 식량구입에지출하고 있다고설명.

한편 영양실조때문에 매년 1천명의 아이중 1백39명이 죽어가고있는 타밀나두주는 인도의 주들중에서 영양개선계획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마드라스(인도)=聯】

潜艦오인 고래受難

★英함대 공격받아 떼죽음

영국여왕 엘리자베드 2세의 부군인 필립공은 포클랜드군도분쟁에 휘말린 남대서양의 고래들이 아르헨티나해군잠수함으로 오인받아 영국기동함대의 공격을받고 떼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주요회원인 필립공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환경보존협회회의에서 행한 연설을통해 포클랜드주변에 있는 영국기동함대가 아르헨티나잠수함에대한 자위조치를 취하는것은 당연하나 그부작용으로 잠수함과 같은 반사음을내는 고래들이 떼죽음을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고있는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걱정.【런던=AP】

일간지 발행 축 1주년기념

북미의 25시를 지키는 파수대 토론토 한국일보

민중의 목탁으로서 교민을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카데미 T. V. ★★★★★★

서부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동부지점— 김정운 ·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 282—2820

酸性비·重金屬오염 人類에 물饑饉공포

「최근 10年間의 環境狀態」 國際환경기구 報告

黃酸化物 방출急增 빗물도 위험

오존層감소… 紫外線이 細胞 파괴

과학 科學

오는 5일은 열번째로 맞은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 UN은 72년 스톡홀름에서 세계 1백14개국 대표가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갈수록심화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키위해 국제환경기구(UNEP)를 창설했다. 이 기구는 매년 지구에서 일어난 환경의 오염, 개선책 등을 종합해 각국에 보고서를 내고있다. 지구는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 기구가 한국일보社에보낸 「1972~82년 개발도상국의 환경상태」 보고서를 요약해 전재한다.

〈대기〉黃酸化物(SO_2) 방출량은 북반구가 남반구에 비해 훨씬 높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인간이 만든 黃酸化物 방출량은 매년5%정도씩 높아져 지난 10년간 총 40~5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70년대말 연간 환산화물 방출총량은 1억9천6백만톤. 따라서 환산화물 방출량을 많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제한했다.

이때문에 최근 이들나라에서는 환산화방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정책이 강력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환산화물의 방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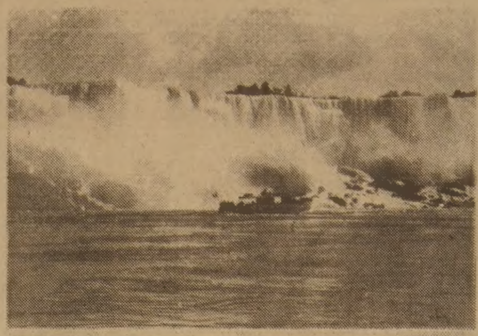
이때문에 이들지역에서 酸性비가 문제가 되고있다. 산성비는 유황성분이 들어있는 기름이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운다든지 광물을제련할때 이들이 대기중에 방출되는데 큰 원인이 있다. 西유럽과 동북아메리카 지역이 특히 문제가 되고있다. 산성비는 내륙淡水를산성화, 水生생물에 나쁜영향을 가져다 준다.

스모크현상을 일으킨 光化學酸化物은 세계도처에서 증가추세를 보인다. 광화학산화물은 도시 특히 자동차가 많은 지역에서 말썽을 빚는다.

성층권의 미세물질과 오존의 변화역시 주목되는 일가운데 하나이다. 성층권의 미세물질은 매해9%씩 증가하는 수세를 보인반면 오존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성층권의 미세물질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고있다. 오존량 감소는 냉장고와 분무용으로 쓰이는 弗素화합물과 성층권을 비행하는 초음속제트기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성층권의 오존량감소는 현재 전체의 1%정도. 서기2천50년까지 성층권 오존량감소는 전체의 10%선도에 이를것으로 보고있다.

생층권의 오존량감소는 地表面에 도달하는 紫外線을 한층 증가시키는 결과를빚게한다. 강력한 자외선은 微生物은 물론 動植物의 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나타낸다. 이때문에 미생물계의 생태학적인 변화는 물론 인간에게 각종 피부암을 증가시키는등의 영향을준다.

二酸化炭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일로에 있다. 1850년전만해도 대기중 탄산가스량은 2백65~2백90PPM(1백만분의1) 정도였다. 그러던것이 80년 3백38PPM으로 증가했다. 하와이에있는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관측결과는 대기중 탄산가스량이 57년이후 매해 1PPM의 비율로 증가하고있음을 보여준다.



여류사진작가 도미니크·로저씨가잡은 「물의 풍요와 기갈」이란 地球의 수자원 불균형을 나타낸 사진. 위 사진은 풍요의 면에서 캐나다쪽 나이애가라폭포의 거대한 폭포현장을, 아래사진은 기갈에 허덕이고있는 아프리카사막에서의 물기근을 나타내고있다.

이같은 대기중 탄산가스량의 증가는 기온과 강우량등에 변화를 일으켜 기후의급격한 변화로 농업에 큰 타격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있다.

〈바다와 물〉바다의 오염은 해양생물 특히 연안에 기식하는 물고기와 조개류(貝類)에 큰 영향을 준다. 바다의 오염은 주로 각종 산업체수와 농업용 화합물, 重金屬類가 문제가 되고있다. 여러 해역에서는 벌써부터 水銀의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 애써 잡은 물고기를 이용할수 없는사태를 빚고있다. 참치가좋은 실예. 바다의 오염은 강어귀와 해안일대 특히 산업지역과 인접한 해역이 심각한 실정이다.

바다의 중금속 오염은 주로 강을 통해 이루어 진다. 강을 통해 들어오는 주요중금속은 철, 망간, 구리, 아연, 납, 주석, 안티몬등. 이밖에 대기를 통해서도 바다가 오염된다. 대기를 통해 들어오는 바다의 오염은 주로 금속과 합성물질이며 해저석유와 천연가스탐사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다.

바다의 석유 오염은 바다새를 죽이고 해안을 더럽혀 관광지를 잃게하고 있다.

有機鹽素劑인 각종 살충제와 PCB(폴리鹽化비닐)등 인간이 만든 각종 유기염소화합물이 넓은 해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 DDT가 생물에 갖어다준만큼의 큰 문제를 일으킬것으로 보고있다.

淡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미 70년대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內陸의 물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

세상에 물만큼 흔한 물질은 없다. 지표면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 만도 자그마치 1백41경3조톤에 이른다.

강과 호수 땅밑을 흐르는 지하수등 陸水는5백10조톤, 양극의 大陸水이 2경2천8백30조톤, 대기중에 있는 수증기가 陸水의 약1백분의3에 이른다. 하지만 물이 이렇게 흔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로하는 물은 얼마되지 않는다. 물 전체의 97·4%는 짠 바닷물이고 1·8%는 극지방의 얼음덩어리이다. 인간의생명과 건강, 생산활동을 지탱하는데 필요로한 물은 전체의 0.8%에 지나지 않는다. 이나마도 물의 오염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인구의절반가량이 개발도상 국가에 살고있는사람들의 3분의2정도가 필요한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殺虫劑등 有機物도 물에 惡影響

사람이 쓸만한 물은 0.8%에 不過

〈산업·교통·관광〉세계 전체를 통해볼때 50년대와60년대는 경제성장에만 모든노력이 경주되어온가운데 환경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에들어서 선진국들은 생활조건개선의 일환으로 환경문제를 크게염려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공장, 주택지별로 환경오염측정을 하기시작했으며 주택지에 가까운 공해공장은 강제철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나 선진국의 환경개선노력이 커가는반면 개발도상국들은 70년대에 들어와서야 경제개발붐을 일으켜 선진국에서는 公害산업으로 이미문을 닫기시작한 원자력공장, 화학제품공장등을 건설하기도하여 환경론자들의 집중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환경논쟁은 드디어 선진, 개발도상국사이의 감정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공해가 환경오염에 얼마만큼 위험스러운가 하는데에 의견이 모아지게 됐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70년대를 통해 줄기차게 수송기능이 발달했다. 그러나 저개발도상국은 동물을 이용한 원시적수송방법을 버리지않고 계속해 수송기관 발달로인한공해문제는 적었다. 파이프線의 설치, 기차의 대형화등은 수송기관발달로인한 공해문제를 줄이는데 큰몫을했다. 자동차, 항공기등이 公害의 주범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은 검사기준을강화하고있어 그런데로 문제가 풀릴전망이 있다.

국제관광객의 숫자는 지난 십여년간 현격한 증가를 보였다.

71년기준 국제관광객 1억7천4백명이던것이 80년 2억8천6백만명이됐다.

이런 관광객증가는 환경보호문제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면을 다같이더해줬다.

긍정적인것은 관광지유치를 위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것. 그러나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몰려듬으로써 고적이 망가지고 자연까지 손상되는 사태가 일어나는경우도 적지않게 일어났다.

세계관광회의는 80년 마닐라선언을 통해 유적보호와관광객유치의 균형을 유지할것을 호소했다.

〈환경교육·공공인식〉스톡홀름환경대회에서 세계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70년대를 통해 환경에대한 교육열이 크게 고조됐다.

특히 UNESCO와 유엔교육계획(UNEP)은 유엔의 교육지원계획에 환경교육을포함시키는진전을보였다.

70년대후반부터 대학에 환경학과 내지는 환경대학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환경에대한 공공인식은 선진국일수록 높아졌고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졌다.

45년 2차대전終戰이후 세계는 대소 70개의 전투를 기록했다. 이전투로 환경이 무참히파괴된일은너무도많다.

환경학자들은 70년대부터 꽤 활발해지고있는 환경보호운동도 일단 세계핵전쟁이 터지면 일순간에 허사로돌아갈것이라고 염려하고있다.

환경론자들이 평화주의자역을 같이 하는 이유가 여에 있다.

7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된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정도의 측정문제와 국제적인 환경통제기구의 구성문제로 집중돼가고있다.

아직 어느정도가 치명적인 환경오염인지에 대해선는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다.

대기에 찬 일산화탄소량, 질소산화물의 허러 기준수치가 제시되고있지만 통일되고 있지 못하다.

선진국의 경우는 공장,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큰 환경요인으로 되고있지만 후진국에서는 쓰레기, 오물등으로 인한 위생문제가 환경문제의 초점이 돼있다.

세계는 지금 국제적인 환경기구를 설치할 움직임을보이고있다. 〈특집부〉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54

1959년 5월, 미국의 명감독 존·포드가 한국을 찾았다. 그는 「하리케인」「역마차」「黃色리본」「리오그란데」등을 만든 명장이다. 특히 40년대초에 만든 「섬난포도」는 아메리카 리얼리즘 영화의대표작이 되었다. 한국감독협회는 당시 해군중령의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의 거장 포드를 반가이 맞이했다. 섬의를다해서 성대한 환영파티를 열었다. 국제호텔 2층 볼룸에서 한국의 영화감독과 여배우들이 자리를 함께해 따뜻한 하루저녁을 보냈다. 나는 환영사에서 「세계는 넓으나 영화감독들은 같은 한가족」이라고 말하고 「메인써포틀렌드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난 개구장이 신·오피나가 세계의 거장 존·포드의 이름으로 한국의 영화감독들 아니 형제들을 찾을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느냐」고했다. 그는 파안대소로 「내 아명을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가족들의 이름도 알고있다고대답했다. 이러한 대화가 통역이되어 장내는 폭소가 터졌다.

映畵界의 바빴던 한때

존·포드監督 歡迎파티 伊디노·리지와도 歡談

그는 우리감독들에게 자기는 각본이 마음에 들지않는 영화를 감독한 일은 없다고했다. 다시말해서 몇푼의 보수를얻기위해서 함부로 아무작품이나 가리지않고 연출하는 것은 감독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많은 감독들이 큰감명을 받았다. 소화할 실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힘에 벅찬 작품을 다루겠느냐는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해 가을 이태리의 더·노·리지감독과 여우 로사노·포데스타일행이 서울을찾아왔다. 데시카의 작품 「소렌토의 가신」을 갖고왔다. 국제극장에서 시사회를 열고 코리아하우스에서 밤이 늦도록 환담했다.

1959년은 생동을 되찾으려는 한국영화에 있어서는 가장 바쁜 한해이기도 했다. 김기영의 「10代의 반항」, 최훈의 「장마루村의 이발사」, 신상옥의 「동심초」, 김묵의 「나는 고발한다」, 김한일의 「내가 낳은 검둥이」, 전창근의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이병일의 「청춘일기」, 김진식의 「대원군과 민비」 필자의 「오! 내고향」등 1백11편의 영화가 쏟아져 나왔다. 작품들은 새로운 의욕들로 충만했고 영화인들도 열의가 엿보였다. 한국영화 부흥의 날이 올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戰後 새로운 영화사조로 세계를 휩쓴 네오리얼리즘은 나의 영화의식을 한국의 농촌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우리민족 고유의 생활상을 소탈하고 현실적인 표현으로 묘사해 보려했고, 절박한 현실문제들을 파헤쳐 보려는 의식이 어느새 습화돼갔다.

◇1959년 5월 내한한 존·포드감독 (중앙) 과함께. 검은안복이 필자.

자유당말기의 사회부조리와 도탄에 빠진 민중의 소리를 담아보려한 것이내 각본, 연출, 제작의 제2탄 「오! 내고향」이란 향토물이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등의 이사장직과 예총, 제작가협회이사등으로 1960년대까지 한국영화창달을 위해 일하면서 통감한 것은 새로운 장르의 예술로등장한 영상문화에 대한 민중의 인식이 낮고 영화에 종사하는 영화인들의 교육도가 대체로 낮다는 점이다.

59년엔 111편의 作品 쏟아져 나와 漢大 映畵科창설 科長·교수로 취임

이무렵 한양대학교총장 金連俊씨가 대학에서 영화교육을 채택할 의사를 표명하고는 의논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漢陽大에 영화학과가 창설됐다. 진실로 경축해마지않을 일이다. 필자가 신설된 영화학과의 과장및 주임교수로 취임한것이 1960년대 후반이다. 그후 20년동안을 대학에서 영화학도 양성에 몸과 마음을 바쳤다. 서울수복후 金世宗씨를 중심으로 서라벌예술대학전신)에서 유두연(故)과 같이 영화교육에 열을 올린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영화인을 배출했고 그중에도 김승호, 최불암, 태현실, 변장호등 중견 영화인이 많이 나온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영화실무에 관여했고 국제영화제에도 참석했다.

1956년 미국의 아시아 재단에서 제공한 기금으로 휴스턴자동현상기와 미첼카메라를 도입해서 한국영화의 과학화에도 참여했다. 故 張基榮한국일보사주를 위시해서 윤봉춘, 이병일, 이진섭, 유성연, 오영진, 방의석, 이재명과 필자등이 이사진으로 한국영화문화협회를 설립했다. 정릉에 스튜디오와 현상소도 갖추었다. 장기영씨의 뒤를 이어 필자가 이사장에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6>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⑥

오목이가 천애의 고아라는 사실과 고아원에서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해 인재한테 낱낱이 고해바치고나서야 수지는 자기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독한 짓을 저질렀나를 깨닫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물이었다. 더욱 난처한건 그녀로하여금 그토록 악랄하게 오목이의 정체를 고자질하게 한 불같은 질투가 무슨 급한 발작처럼 자취도없이 가라앉아 있는 거였다.

도대체 어쩌자는 질투였을까? 인재하고 정답게 마주앉았던게 오목이가 아닌 딴여자였더라도 그런 야비하고 맹렬한 질투에 사로잡힐수가있었을까? 안그랬을것 같았다.

그렇담, 오목이가 바로 이십년전에 버린 동생이란 게 의식할 여지 없이 밝혀짐과 동시에 얼싸안고 혈육의 정과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운 눈물을 쏟기는커녕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고자한 심보야말로 마녀(魔女)의 심보였다.

이다지도 극명하게 나자신을 바라본적이 또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인광처럼 싸늘하게 수지의 뇌리에서 번득였다.

자신뿐아니라 인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지는 자기의 혀끝 하나로 자유자재로 희롱할수있는 남자라면 질투할 값어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수지의 변덕을 알까닭이없는 인재는 입을 약간 헤벌리고 그녀의 나불대는수다를 흥미진진하게 경청하고나서 단박오목이한테정이뚝 떨어졌다. 오목이한테 정이뚝 떨어진것 까진 또 좋은데 그것을 당장 수지한테서 만회할 수있으리란 섣부른기대로 애가 닳아 연방 그윽하고도 뜨거운 시선을 수지한테 보내고있었다.

그런 인재를 수지는 다만 차디찬 마음으로 바라다보았다. 좀전에그녀를순간적으로 스친 질투가 그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 불꽃이었던양 그녀의 마음은 다시는 따뜻해지지않았다. 섬세하고 순박한 인재대신 어리석고 초라한 인재가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환상없이 다만있는그대로의 인재를 직시해보긴 처음이었다.

그녀를 마녀처럼 만들었던 질투가 그녀의 사랑의 마지막 불꽃이었다면 오목이와 마주앉은 인재가 그다지도 매력적으로 성실하고 순박해보인건 인재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환상이었다.

『미스 흰가, 미스 온가 그렇게 참 나쁜 여자인줄은 정말 몰랐는데…』

수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도 한참 만에 인재가 이렇게 무섬의한 논평을했다. 인재는 오목이로 인해서 다시 수지와 긴 이야기를 나눌수있었고 다시 그전처럼 가까와졌단 사실에 허겁지겁한 나머지 오목이가 고아건 거짓말장이건 실상 별로 관심도 없었다.

『뭐라구요?』

수지가 발끈했다.

『깜찍한 계집애야. 난 그것도 모르고 감쪽같이 속았지 뭐야. 양가집 규수인척을 좀 잘했어야 말이지. 장차 큰 일 저지를 계집애야』

『말 다 했어? 그게 자기를 죽도록 사랑한 여자에 대해 할 소리라고 생각해?』

수지는 가까스로 이정도로 온당하게 말했지만 가슴속에선 느닷없이 자신도 이해할 수없는 격렬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⑦

『수지, 오해하지마. 누가 누굴 사랑했단는 거야? 설사 그 계집애가 날 사랑했대도 나한곤 상관 없는 일이야. 그 사기꾼 같은 계집앨 내가 알게뭐야?』

인재는 수지가 오목이한테 질투하고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목이를 깔아뭉갬으로써 수지의 환심을 사기에만 급급했다.

『오오, 제발 그애를 그럴게 나쁘게 말하지마.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음 그런 거짓말까지 시켰을까 생각좀 해봐』

『너야말로 제발 그 애 애기 좀 그만 할수 없어? 불쾌해』

인재는 열심히 오목이를부정함으로써 수지에게 아부하려들었다. 그런 인재가 수지보기에 매우 용렬해보였다.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사랑했단 말인가?

수지는 자신을 위해서도 오목이를 위해서도 같은 개탄을 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의 실상을 발견한 느낌은 한바탕의 쓸쓸한 환멸에 지나지않았지만 오목이가 사랑한 남자의 실상을 대하는 느낌은 좀 더 복잡했다. 목놓아 울고싶은 비애였고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주고싶은 원색적인 분노였다.

그런 슬픔과 분노는 처음이었다. 만일 실제로 그자리에서 인재의 멱살을 잡는다면 살집이 가닥가닥 떨리게 미우면서도 오목이를 위해 뭔가를 애걸하지않고는 못배길 것 같았다.

그녀가 오랫동안 사랑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만 오목이를 헌신짝처럼 버린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아아, 가엾은 오목이. 불쌍한 것!

잠깐 늦게, 아니 훨씬 늦게 없이 늦어진 다음에야 수지는 비로소 자신의 분노가 뼈와 살을 나눈 동생에 대한 연민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나는 왜이런 방법으로밖엔 오목이가 내 동생임을 받아들일수가 없었을까? 수지는 인재가 싫고 미운 것만큼이나 자신이 밉고 싫었다.

좀전에 본 오목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보아온 오목이의 모습중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다. 얼마나 인재를 사랑하고있는지 빤히 보이는 것같았다. 아마 오목이가 행복할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였으리라. 동생의 단 한번의 기회를 아무런 목적없이얼마나 야비한 방법으로 짓밟았던가?

돌려줘야 한다. 감쪽같이 돌려줘야 한다. 이십년 전에 빼앗은 건 못돌려줘도 당장 빼앗은 건 돌려줘야 한다.

그녀는 문득 세상의 소박맞은 딸의 부모가 사위를 때리거나 욕하지 못하고 왜 애걸하고 빌붙어야 하는지 알것 같았다.

『빨리 따라가봐. 멀리는 안갔을 거야. 가서 사과해.』

『누구를?』

내 룩까지』

수지가 진지해질수록 인재는 시침을 떼고 느물댔다.

『누군지 정말 몰라서 묻는거야?』

『정말 강짜 한번 끝내주게 하네』

『내가 강짜를 한다구?』

『그럼 아니니? 하긴 강짜하는 네가 더 이쁘다. 우리 사이가 변함없다는 걸 알게돼서 기쁘기도 하고 오늘이야말로 내 최고의날이야. 제발 초치지만』

수지의 복잡스러운 태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 인재가 자신있게 수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지가 야멸치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얻다 손을 댈려고그래? 난 약혼한 몸이야. 벌써 마음 변한지 오래야. 정신좀 똑똑히 차리고 살아』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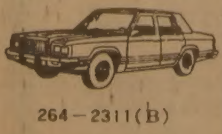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축

일간발행 1주년기념

나날이 발전해가는 토론토 한국일보사의 성장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에 흐르지 않는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건투를 빕니다.

와그너피아노 박성희 446-1431(B) 286-1548(R)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449-8644(B) 286-1548(R)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υ

漢江물고기 씨마른다

배터리등 電氣충격 不法漁撈성행

昇壓트랜스까지 사용

稚魚마저 훑어 매운탕집에

漢江의 상·중류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전기충격에의한 불법어로로 떼죽음을당하고 있다. 최근 성행하고있는 전기충격어로는강바닥에있는 산란기의 담수어는 물론 치어(稚魚)까지 가리지 않고 남획, 그렇지않아도 수질오염과 함께 감소하고있는 漢江의물고기가 멸종될 위기에 빠져있다.

◇불법어로꾼들의 고깃배에 전기투망과 여기에 사용될 배터리가 실려있다。

서울의 廣津, 鷺梁津, 뚝섬, 광나루등 漢江중류와 경기도의 驪州, 利川, 楊平, 廣州등 南漢江일대에서는 물론 北漢江, 漢灘江, 臨津江등에서도 밤에만 배를타고 자행되는 이같은 불법 어로때문에 희귀종인 황쏘가리는 이미자취를감추었고 쏘가리와 메기도 큰수난을 겪고있는것. 驪州의 경우만해도 고성능 배터리를 장치한 모터보트가20여대에 이르고있으며 이들이 하루 평균 2백여㎏의 각종담수어를 잡아 매운탕감으로음식점에 납품하고있다.

이들은 투망에다 전선을연결해 강바닥의 고기를 훑는 전기투망식과 막대기 2개에 전기를 연결, 강변에서 수중합선을 시켜 잡어를 잡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배에 설치한 배터리는 3백볼트에서 9백볼트까지 승압시킬수 있도록 트랜스까지 사용하고있다.

서울普光洞일대에만도 배터리를 실은 배가 20여척이나 됐는데 이들중에는 트럭과 산소통까지 동원, 지방으로 나가 전기투망으로 고기를 잡은후 낚시터등에 팔기도 한다.

아침7시께 普光洞 나루터는「작은 波市」

형식에그친 團束…황쏘가리는 자취감춰

불법어로꾼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배터리와트랜스를 날이밝기전에 집에서 가지고 나온뒤 물살이 센곳이나 웅덩이가 있는 곳을 골라 배의 동력을 끄고 투망을 친다.

이들은 대개 2인1조로 한사람이 그물을치면 다른한사람이 투망에 연결된 코드에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투망주위의 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

그물 밑바닥에 굵은 동선을 반달모양으로 매달았기때문에 전기를 넣는순간 고기들이 감전, 아무 저항없이 죽기때문에 비늘이 벗겨진등의 상처가 없어 팔기에도 수월하며 낚시터등에도 내놓기 좋다는것.

城南등지에서는 이들 불법어로꾼들이 그물눈이 작은 투망을 사용, 작은 고기까지 모조리잡아 매운탕집에 넘기고 있다. 또 廣津이나 鷺梁津에서 잡은 고기는 오염으로 냄새가나 매운탕집에 팔수가 없기때문에 東大門이나 南大門시장 상인들에게 판다.

이들 상인들은 5~6월이 산란기로 잉어잡이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내놓지않고 진짜 실수요자가 접근하면 지하실이나 가게안으로 데리고 간다.

아침7시께 普光洞나루에는 20여척의 배가 몰리는데 10여명의 상인들이 몰려들어 「작은 波市」가 열린다. 거래는 관(貫)으로 하는데 잉어가 7천원, 붕어가 3천원, 메기 1만5천원, 뱀장어 3만원이지만 단골아닌 낯선사람에겐 팔지 않는다.

이들 불법어로에대한 단속은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이다。黑石洞에서 고기를 사서 上道洞에 팔고 있는 李모씨(57)는두번이나 수산청직원에 적발됐지만 불법어로꾼들에 대한 단속은 안하더라고 말했다. 결국 불법어로는 놔두고 상인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

서울시는 허가를 내준 사람에겐 1년에 1회 면허세 7천2백원만 부과하고 어획량등은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고 이들의 어로방법에 대한 감독도 별로 않고있다.

동물학자 崔基哲박사(서울대명예교수)는 『수질오염으로 한강의 고기가 줄어드는판인데 어부들이 산란기도 아랑곳없이 전기투망으로 담수어를 마구 잡는 것은 먹이사슬이 끊어져 결국 생태계 파괴가 가속된다』고 우려했다.【鄭在龍기자】

산란기 물고기잡은 5명告發·어망燒却

【鎭海】경남金海郡은 2일 서낙동강에서 산란기의 민물고기를 잡아온 박삼도씨(39·金山市北區江東洞208)등 5명을 내수면어자원보호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삼각망등 불법어망42통을 제적거 소각처분했다.

군에따르면 이들은 서낙동강일대에서 삼각망등 불법어망을 설치, 산란기의 잉어, 붕어등 민물고기를 잡아왔다는 것.

군은지난4월부터 두달동안 서낙동강에서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17명을 적발, 고발하고 어망97통을 강제철거소각처분했다.【聯】

軍C123機 墜落

將兵53명 全員사망

1일 城南근처 空輸훈련중

1일하오2시40분께 경기 城南市서쪽 7㎞거리의 산악에 군수송기(C123) 1대가 추락, 이사고로 탑승하고있던 육군장병 49명과 공군승무원 4명등 53명전원이 순직한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국방부가 발표했다.

사고수송기는 탑승한 육군장병들의 공수낙하훈련을 위해 비행중이었다.

국방부는 이날 사고기가 이륙직후 사고지점상공의 기상이 갑자기 악화됐었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고원인을조사중에있다고발표했다.

탑승자들의 소속은 육군제8655부대장병 49명과 공군제5672부대소속 승무원 4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尹誠敏국방장관은 이날C123기의 추락사고에 대해 「국방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깊이사죄하며 유족들에게 심심한애도의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빗나간 內助

不渡남편 석방위해 사기행각 아내拘束

【順天】전남順天경찰서는2일 부도를내고 구속된 남편을 돕기위해 1천7백여만원을 사취한 金청아씨(29·서울龍山區漢江路2街12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金여인은 4년전인 지난 79년 남편 朴동균씨(37·전남麗水市鳳崗洞879)가 참기름집을 하다 빚에쪼들려 7천만원의 부도를내고 구속되자 남편을석방시키기위해 평소 안면이있는 崔미자씨(34·전남順天市南亭洞58의2)에게 계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속여 1천7백70만원을 사취했다는것.

김여인은 경찰에서 『5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위해서는 남편이 풀려나와야겠기에 온갖 수단을 동원, 부도를 정리하다보니 이같은죄를 짓게됐다』면서 『이제 남편이 석방됐으니 나는구속돼도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東邦 사회복지財團 설립

90年까지 8백억投入 회관건립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高相謙)가 동방사회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을 설립, 2일 보사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재단측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금년부터 오는 90년까지 모두 8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자재활센터, 종합병원, 노인복지센터등이 포함된 연건평5만3천평 규모의 대규모 복지단지(장소미정)를 서울근교)에 건설한다는것.

이 단지안에는 ▲지체장애자, 정박아재활센터(3백50명 수용)=3천평 ▲종합병원(1천개 병상)및 양성소=3만평 ▲노인복지센터(2천명 수용)=2만평등의 시설이 들어서게되는데 지체장애자와 정박아재활센터는오는84년에, 그밖의시설은90년까지완공할계획이다.

연탄넣고 자다 3자매 中毒死

2일 상오6시30분께 서울九老區禿山4洞1028의1 朴晶周씨(48·사업)집 아래층에 세든 安東鎬씨(54·회사경비원)의 2녀 蓮姬양(19·화장품대리점 점원), 3녀 銀姬양(16·대림여중3년), 4녀 允姬양(14·영등포여중3년)등 3자매가 전날밤에서 잠자다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 신음중인것을 어머니 禹英子씨(42)가발견,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이들 3자매는 기온이 쌀쌀해지자 전날밤11시께 연탄불을 갈아넣고 방문을 꼭닫은채 잠자다 변을 당했다.

◇기온이 쌀쌀해지자 연탄불 갈아넣고 잠자다 숨진 蓮姬, 銀姬, 允姬양자매。(위로부터)

"水道公債 부담크다"

釜山, 자동차檢査때 過多매입요구

【釜山】부산시가 각종 자동차검사때 차주들에게 검사비의2배가넘는수도공채를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강요하고있어 차주들의항의를받고있다.

2일 차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18일 지방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갑종검사때 차종에따라 2~6만원씩의 수도공채를 매입토록하고 이를 사지않으면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시내 3개자동차검사장에협조를요청했다는것.

시가 조례로정한 자동차검사용 수도공채액수는 자가용의 경우 1천5백㏄ 이하의 승용차가 4만원, 1천5백㏄이상 5만원, 대형차 6만원, 영업용버스와 택시 화물차는 각 2만원씩으로 돼있다.

그러나 검사장측은 각차량의 수도공채액이 검사비의2배가 넘는데다 검사를 거부할 근거가없어 공채판매를보류한채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유권해석을 질의해놓고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갑종검사를 1년에 2회씩 받고있는 영업용 차량의 검사비가 8천9백원인데 비해 공채는2만원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 이를 철회할것을촉구했다.

이에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연간 10억원을 넘을것으로 예상되는 공채의 세수확보를위해 어쩔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공채를 사지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는 물론 등록도 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聯】

大學여름放學 앞당겨

期末시험 예년보다 1~2週 빨리치뤄

대학의 여름방학이 당초학사일정보다 1~2주일 앞당겨 실시된다.

대학의 여름방학은 1학기말고사가 끝남과동시에 실시돼왔는데 금년도는 각대학이 기말시험을 예년보다 빨리실시하기때문에 방학도 빨라지게된다.

서울大는 1학기말시험을 2·3·4학년은2주일, 1학년은 하루를 앞당겨실시키로했다.

전공과정의경우 당초 7월5일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됐던것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로, 기초과정은 오는28일부터 7월1일까지 당초예정보다 하루앞당겨 각각실시키로했다.

高麗大는 오는7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학기말고사를 10일앞당겨 오는23일부터 7월3일까지 치르기로했으며, 延世大도 10일앞당겨 6월21~7월10일까지 각각 기말시험을 치르기로했다.

拘束된 28명起訴

40여명 指名수배

李·張관련 업자·錢主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2일 지금까지 파악된 중간사채업자및 전주40여명에 대한 명단및 계보를 공개하고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李·張부부와 거래했던 사채업자는 구속된金鍾茂 田永栄 郭慶培씨와 수배중인 金永哲 黃赫老씨를주축으로 4~5개파이며 이들밑에 40명에 이르는 중개인이 있는것으로 밝혀내고 거물급사채업자인 金씨와 黃씨가 검거돼야 관련사채업자계보가 모두파악될것으로 보고 이들의 검거에 수사력을쏟고있다.

검찰은 또 大和산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미 구속된 간부 5명외에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모두 구속할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李씨부부의 사기행각 초기에 李씨가 중앙정보부 재직시 친분이있던 사람들이 李씨를 통해 자금을 대고 돈을 돌렸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李씨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계속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李哲熙씨의 여권발급을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받은 전국가안전기획부 외무부연락관 宋正光씨(40)와 大和산업이사실 부장 任文淳씨(41)등 2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宋씨는 지난해 4월27일부터 금년1월19일까지 안전기획부 외무부연락관으로 있으면서 신원특이자에대한 해외여행 서류접수등의 업무를 맡아 오던중 지난9월10일 외무부 여권과 106호실에서 任씨로부터 李哲熙씨의 여권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해 10월 하순 서울江南區淸潭洞 강남다방에서 任씨로부터 사례비로 1백만원을받은혐의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자는 28명으로 늘어났는데 검찰은 이날 하오 관련자 전원을 모두 기소했다.

동원訓鍊중 무단이탈

豫備役장교 4명拘束

경찰은 2일 예비군동원훈련을받다가 무단이탈한 金英碩(34·서울東大門區淸凉里1洞 미주아파트4동1103호)와 韓維씨(서울 東大門區里門1洞143의31)、金範碩씨(34·서울道峰區倉2洞581의32)、文永泰씨(33·서울道峰區月溪1洞35의407)등 예비역 중위 4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달10일부터 육군 모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다가 13일하오 술을 마시고 부대를 무단이탈, 이날밤10시께 부대로 돌아왔었다.

賀客명단提出

李·張부부 結婚式참석

鄭致根법무장관은 1일 저녁 李哲熙·張玲子부부의 사파리클럽결혼식에 참석했던 1백22명의 賀客명단을 국회 法司委에 제출했다.

이날 제시된 명단은 나이나 직업이 기재되지않고 이름만으로 한글로 나열한것으로 鄭장관은 『결혼식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배후작용을 한바가 없으며 개인적 친분관계때문에 의례적으로 참석한것이므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밤 法司委소속의원들에게 제시되었다가 곧 회수해간 참석자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이名單은 본사가 入手한 명단 사진으로 判讀한것임)

김영광 김진봉 김상년 강희채 고태석 김영환 김병휘 김종성 김세배 고일섭 김정훈 강용희 권병인 김법전 김영덕 김익열 김선일 김영수 김연신 김기완 김여수 강영채 동태수 문상학 묘순스님 맹보영 민기식 박기종 변재갑 변태수 박삼철 배종호 백남권 박설산 박권흥 박기병 변강우 배우기 박완일 박재경 박용철 박전배 박금순 서윤택 송병욱 신재식 신동우 손현숙 송영복 신상철 석주스님 성종규 서경길 사영석 송지영 이남배 이화송 임재수 윤일균 임봉준 이병희 유의열 이만호 이전영 왕경혜 이진선 윤성용 이인수 유근환 이화수 이두정 오정식 양정규 이강결 이상익 왕세일 이규삼 이규광 이춘경 이용택 이호연 이호섭 이존일 오무순 임창근 이병주 이도환 이명춘 이화용 정의식 조창구 전재구 주창균 지광스님 조내벽 조정구 조성근 정혜상 정혜산 장송록 정태동 장병준 정연택 최훈섭 최수일 최재구 최영희 홍종면 혜성스님 허혜정 홍인섭 홍윤용 홍승달 하능스님 해길원 황성현 하태준 홍화수

가정집 2人組강도

돈·승용차등뺏아가

【蔚山】2일 상오2시58분께 경남蔚山新亭2洞164의15 金今泰씨(39·설비업경영)집에 27~28세가량의 남자2명이 식도를갖고침입, 金씨등 가족3명의 손발을묶고 입에다 넥타이를 물린뒤 현금1만원을 뺏아 金씨소유의 경남1다5732호 마크Ⅳ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聯】

일가족 연탄중독

딸죽고 母子중태

【釜山】2일 새벽 2시20분께 부산南區民樂洞368 呂중이씨(41·노동)집 안방에서 呂씨의부인 崔분봉씨(37)와 아들 승희군(10·국교3년), 딸 정화양(6)등 3모자가 연탄가스에 중독, 신음중인것을 呂씨가 발견, 침례병원으로 옮겼으나 정화양은 곧 숨지고 崔여인과 승희군은위독하다.【聯】

「囚人 의원」

人生도 치료하는 外科醫 白炳錫씨

길잃은出所者 갱생 길잡이 10년

외과전문의 白炳錫씨(41·사진·서울道峰區彌阿3洞202의3)는 여러모로 희한한 인물이다. 개업10여년동안 상해진단서를 단 2건 밖에 발부하지 않았다. 종이 한장에 글자몇자 적어주고 4、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이권」을 왜 스스로 포기 하는 것일까. 그는 또 한사람의 전과자를 만든다는 것이 차마 못할 짓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다.

홧김에 내지른 맹목적인 주먹질이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그의 생애를 망치고, 그가 출소하면 고소인을 찾아가 앙갚음해서 전과가 늘어가는 「증오의 악순환」을 그는 무수히 보아왔다고 부연한다.

그래서 어쩌다보니 10여년동안 출소자들의 갱생보호사업을 펴게되었노라고 수줍은듯 말을흐린다.

그는 교도소를 출소하는 사람들의 주소를 알아내 일일이 편지를보낸다. 『출소를 환영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꼭한번 저를 방문해주십시오』 — 이렇게해서 白씨를 찾아오는 출소자들은 한달에 3명꼴.

白씨는 이들에게 취직보증을 서주기도하고 취직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갱생보호위원회에 추천해서 손수레나 자전거를 마련해주기도한다.

그러나 白씨의 편지를 받고도 모습을 나타내지않는 출소자들이 더 많다. 그럴때 白씨는 이들의 주소를들고 변두리지역을 찾아헤매기도 했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나타나지조차 않으니 답답한일』이라며 白씨는 안타까와했다. 그는 노련한 형사처럼 우범자 집단거주지의 뒷골목 이름까지 꿰어 뚫고있었다.

병에 걸렸으나 치료비가 없는 출소자들이 白씨를찾아와 치료를받고 가기도한다. 그의 의원에는 출소자들을 면담하기 위한 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다. 白씨가 선도한 출소자들중에는 지금 신학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지만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간 사람도 많다.

그러한 白씨에게 지난달 31일 검찰총장이 와달라는 전갈을 보냈다. 갱생사업에관한 표창을 하겠다는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의료기능인이 아니라 「人生의 의사」인지도 모른다.

상을받은 사실을 끝까지 감추려하는 白씨.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白씨같은 존재는 이 사회에있어 「多多益善」이다.【金薰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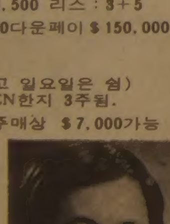
이대환부동산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부동산 회사에 맡겨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4+5 옵숀 10년

＊도나스·샵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3+5+5+5 아스킹 $310,000다운페이 $150,000

＊햄버거·샵
(새로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은 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축
일간발행 1주년기념

토론토 한국일보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축원하오며,
더욱 교민사회를 위해 일해주는 신문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동궁식당
1416 VICTORIA PK. AV.
757－6334 곽창수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디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넷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張·金 두女人이 話題의 焦點

이달의 여성지들은 「큰손을 가진女人」張玲子의 어음사기극과 스타 金芝美의 세번째 破鏡을 일제히 특집으로 다뤄 두 女人의 화제가 장안을 휩쓸고 있음을 보여 준다。「張玲子 스토리」는 각 신문들이 샅샅이 훑고 지나간 숱한 화제들을재탕으로 벗어나간데 불과하지만 「金芝美스토리」는 張玲子란 워낙 큰「기사거리」에 밀려 각신문들이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을 메워 나가면서 「만남」 못지 않게 「離別」을 야무지게 처리한다는 大스타의 사랑과 人生을 조명하고 있다。이밖에 6·25동란 32주년을 맞은 6·25특집, 여름옷 만들기, 여름밑반찬, 李性徹 종정 인터뷰, 탄광촌과 빈민가 르포,참사를 맞았던 의령현지르포등이 6월호 여성지를 꾸미고 있다。

이달의 女性誌

◇張玲子와 金芝美 두 女子의 스토리가 이달의 여성지를 휩쓸고있다。

金추기경 美서 얼결에 回甲宴

女流 10名이 겪은 6·25의 悲劇

피하려다 더큰잔치

○…지난5월8일 回甲을 맞았던 金壽煥추기경은 뉴욕에 들렀다가 信者들이 정성껏 준비해놓은 回甲잔치상을 받고 얼결에 회갑잔치를 치렀다。金추기경은 回甲잔치를 준비하려는 서울의 信者들을 물리치고 터론토韓人聖堂낙성식에 참석하기위해 캐나다로 떠났었는데 돌아오는길에 美國에 들렀다가 갑자기 回甲잔치의 主人公이 되었다。

「女苑」은 뉴욕의「고려정」에서 벌어진 회갑잔치를 화보로 싣고있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잔치상을 받고 있는 빨간 주교복차림의 추기경모습이 「회갑맞은 할아버지」모습처럼 즐거워 보인다。이날 잔치에는 1백50명의 하객이 참석했으며 美國뉴스성당 본당신부등 神父여러명이 함께 상을 받았다。

「女苑」은 이밖에 「최고경영자를 경영하는 아내들」「식탁위의 조용한 殺人者소금」「잃었던 아들을 찾은 권투선수 권혁어머니의 手記」등을 싣고있다。

鄭鎭宇씨 6·25수기

○…「女性東亞」는 6·25 32주년을맞아 여류10명이 겪은 그날의 생생한 비극을 특집으로 싣고、6·25를 통해 새삶을 살게된 피아니스트鄭鎭宇교수 (서울음대)의 감동적인 수기를 싣고있다。

朴婉緖 (작가) 崔敬子(국제복장학원장) 沈致善 (이화여고교장) 白魯姬 (가수) 鄭光鎭 (언론인) 王畯連 (요리연구가) 金惠英 (언론인) 孫章純 (작가) 朱貞一 (교육학자) 金昌實씨 (書畫탑대표) 등 여류10인이 겪은 6·25의 체험은 가랑비가 내리던 일요일 집에서 「교회에서 돌판에서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전쟁에 휘말렸던 그날을 숨막히게 회상하면서 전쟁이 인간의 생애에 미친 아픔과 교훈을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鄭鎭宇씨의 6·25는 의사였던 그가 두다리를 절단해야하는 절망앞에서 음악을통해 영혼의 구원을얻으며 인생항로를 바꾸게했던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鄭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으며 6·25가 터지자 군의관이되어 50년11월 강원도 洪川지구에 투입되었다。포탄이 쉴새없이 날아드는 속에서 그가속한 부대는 고립되었고 천신만고의 고생끝에 탈출하여 아군수색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된다。그러나 그의 두다리는 동상으로 썩어서 足趾部절단이라는 비극적 선고를받는다。다리절단수술을앞두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앞에 소아마비로바이올린을 켜던 안병소씨가찾아와 「하나님과 음악의세계」에 눈을 뜨도록 도와준다。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고통스러운병을 계속한끝에 51년 여름 마침내 두발을 딛고 일어선다。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를 성악가 金天愛를 비롯한 음악인 친지들은 「불사조 정진우」라고 외치며 뜨거운 눈물속에서 얼싸안고 격려해주었다。그는 52년11월15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의사가아닌 피아니스트로 데뷔하여 성공적 리사이틀을 가졌고 이를 계기로 음악의 세계에 그의 인생을 바칠 결심을한다。그러나 鄭교수는 그의 사라져간 「제1청춘」에 대한 미련을 잊지못해 73년에는 「일정한 음악이 정신과 환자에 미치는 정서반응」이란 논문으로 의학박사 학위를받기도했다。

◇회갑잔치상앞에서 기뻐하는 金壽煥추기경。

25세 未婚男性 98명중 8명만이 無경험

거의 20代初性경험

○…「영·레이디」는 25세의 미혼남성 98명에게 性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남자는 순결자유、여자는 순결」이란 기사를 싣고 있다。

이들 98명중 성경험이 없는 사람은 8명뿐이고 나머지는 20代初에 성경험을가진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대상은 「여자친구나 애인」(35명)「몸파는 여자」(27명)「노상이나 버스에서 만난여자」「직장 동료나 클라스·메이트」(각각8명) 등이었다。이들중 83명은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계속적인 성행위를 갖고있다고 고백。그러나 이들 남성들은 자신의 결혼상대가 『육체적으로 순결할것』(65명)을 바라고 있으며、30명은 『상관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주목할만한것은 성경험이 많은 남자일수록 「절대로」란 단서를 붙여 여자의순결을요구하고 있고 성경험이전혀없는남자들은50%가「상관없다」는대답을하고있다는것이다。

「영·레이디」는 이밖에 「인기가수 조용필의手記」「무허가 직업소개소 잠입취재」등을 다루고 있다。

李銀河 「무당딸」 是認…"어머니는 훌륭"

노래入賞사실豫言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어머니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가수 李銀河는 항간에 퍼져있는 「무당의 딸」이란 소문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의 어머니가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 사연을 「주부생활」에 적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37년 충남 장항에서 임씨집의 둘째딸로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軍 의장대에서 아코디온을 연주하던 남자를만나 李銀河를 낳았다。남편이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지않자 그의 어머니는 다방、로스구이집、통닭집등을 경영했으며 69년 서울농대입구에서「하사주점」을 경영할때「하얀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어머니는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았고 청량리의 「흑뿌리 만신할머니」에게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그의 어머니는 집에 조그만 신당을 차려 허공산신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신통력이높라와 자신이 KBS세계가요제에 출전했을때 부진했던것과 80년도 KBS최고가수상을 받을것등을 모두 예언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위사람들이『李銀河씨어머니는용한점장이』라는 말을 걸어와도 조금도부끄럽지 않다고말하고 오히려 그가 인기가수가 될수있었던것은 엄마의신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자랑한다。

◇가수 李銀河와 그의 어머니。

한국일보 詩壇

農夫記

李殷邦

땀빛 저린 무게로
하루해 砂金을 캔다。
땅을 파면 흙에 묻힌
제 삶은 싹이 틀까
짐부린 바지게 위에
가득 실린 남루한을。

까칠한 겨울을 비워
이봄 防築을 새로 쌓고
해갈이 봇물로 괴는
제 논에 물꼬를 댄다。
한 하늘 섬기는、길도
조상처럼 모시런가

바람난 빈쭉정이
바람속에 건너 가고
은혜는 恩惠로웁게
씨뿌리는 구슬 땀빛
오늘도 먼산 보고
절하듯
디딤방아 찧는 生涯。

나의 이력서

金蘇東 ㊿55

(題字 金蘇東)

1961년 漢陽재단이 설립한 한양영화공사를 맡아 운영했다。한국영화의 컬러화가 시급하던때다。「孫悟空」을 컬러로 촬영했다。金洙容감독을 연출자로 정하고 나와 함께 홍콩에 가서 2개월여를 체류하면서 완성했다。이무렵부터 컬러자동현상기가 들어오기시작했고 컬러 작품도 늘어났다。1960년대는 흑백이 천연색으로 교체되던 때다。60년대말에야 흑백영화가 스크린에서 완전히 사라졌다。한양영화공사에서는「진시황제와 만리장성」、「아편전쟁」、「혈면」、「굴비」등 수십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한편 영화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등 영화법통과와 영화진흥조합 (현진흥공사)이 탄생하기 까지의 산모역할을 했다。20여년동안 대학에서 영화교육에 정열을 쏟으면서 대학논문집에 영화의 학술적이론을발표했다。전문지에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세미나도 여러차례 열었다。

名譽로왔던 몇가지일

기억에 남는것은 1976년가을、현대영화의 진로에 관한 한미국제심포지엄을서울에서개최한일이다。샌디에이고주립대학의 로이·매드센 (Roy Madsen)박사가 미국측 발표자로 참석했고、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다。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매드센박사와는 당시의 친교로 지금도 서신이 끊이지않는다。

73年 영화인으로 첫文學博士학위

1973년2월 논문 「언어의 리듬이 영화영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양대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영화예술인으로서는 제1호가 되는 셈이다。학회、동창회、친지들이 모여 성대한 축하연을 열어주었다。이숭녕、김명선、전풍진、이경선박사들이 와서 축배를 들었고 이해랑、조택원、이병일、백철、오재경、이봉래、유현목、한형모、최훈등많은 친지와 영화인들이 격려를 보냈다。특히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소베씨 (Robert Souve) 부처가 참석해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1963년 제3공화국이 탄생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다。R씨의 천거와 주위인사들의 권유로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갔다。학문연구에 몸 바쳐야할 대학교수가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고 생각했다。그러나 대학생들이 피를 흘려서 바로잡은 부패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쾌도난마의 과감한 힘이 절실히 요구되던 때다。그 일단을 쾌히 짊어지는것은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했다。초대수석공보비서라는 직책을 지고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민중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사회가 평온해졌다。필요로하는 시기에 알맞게 일을하고 곧 청와대를 물러났다。

그후 몇해동안 대한통운의 중역으로 일했으나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다。대한통운은 구조선운송의 후신이다。대학졸업후 조선운송에 몸을 담았었고 제3공화국시대에 다시 대한통운에서 몇해를 보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것같다。3남 明植군이 현재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으니 더욱 그러하다。

젊은 대학생들과 토론을 전개하고 그들과함께 꿈을 키워온것이 엊그제같다。얼마전 KBS 교육방송의 「나의 회고록」을 녹화하기위해 그리운 대학교정을 찾은일이있다。이구석 저구석에 내젊은시절의 꿈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느꼈다。1972년5월 중앙대、동국대、서강대、서라벌대、한양대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연극、영화、방송학과의 교수들을 규합해서 한국영화학회를 만들었다。학술강연회도 열고、논문집도 여러차례 발간했다。현재도 그 회장직을 맡아보면서 아직꺼지지않고 타는 모닥불같은 정열을 그대로 태우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 정훈연구위원 문공부문화예술대상 운영위원、문교·문공부장관자문위원、대종상、청룡상、문화예술상등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일들이 기록영화같이 내마음속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1980년 대한민국예술원회원으로 추대되었고 81년 가을에는 예술원대상을 수상했다。큰 공훈세우지못하고 이런 큰 상을 받아 후학들에게 부끄럽다 뿐이다。그러나 비록 늙긴 했지만 내 날개는 창공을 향해 날고 싶은 염원에 차있다。

◇1973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내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성실한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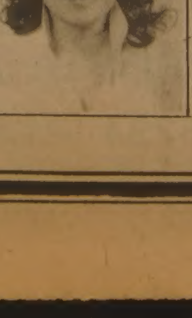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신문

신속·정확한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더욱 발전하시고,

교민사회의 주춧돌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관



대표 나 옥 녀

628 BLOOR ST. W.

☎ : 536－0290

三美·OB 延長戰 불꽃對決

프로야구 14회末서 尹東均 3루타 OB신승 5-4

2위三星、해태에져

33세의 노장 3번尹東均이 연장14회말 회심의 중월3루타를날리고 李洪範의 희생플라이로핀치러너具較書가홈을 밟아 팽팽하던 4―4의균형을 깨뜨리고 OB·베어스에 귀중한 1승을 더해주었다。

◇許丁茂부부 歸國 2일 하오 텔런트출신의 부인 [illegible]씨、두살난 (딸과함께 귀국한 許丁茂선수。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2일 大田구장에서 꼴찌팀 三美·슈퍼스타즈의 宋慶燮에게 역전3타점、2루타를얻어맞으며 악전고투하던 OB베어스는 14회연장말 尹東均의 결승점으로 5―4로 신승、21승7패를 마크했다。

40게임으로 우승을 가리는 전기시즌의 단독선두 OB는 20승7패、최하위 三美는 7승20패의 묘한 승패를안고맞섰다。三美는 그동안 OB에 6전6패。도깨비팀 三美도 OB만은 잡지못해 OB의독주를 허용한셈이었다。

OB는 大田구장 홈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1회말 2死후 尹東均 申慶植 鄭赫鎭의 연속3안타로 2점을 선제。

그러나 三美는 6회초 집중4안타로 역투하던 OB선발 朴相悅을 맹공、1―2로 추격했으며 2死만루에서 8번 宋慶燮이 OB의 구원투수 朴哲淳을 강타、주자일소 역전 2루타를 날려 4―2로 게임을 뒤집었다。

OB는 8회말 5번 申慶植의 우월2루타와 스퀴즈플레이로 다시 4―4의 동점에성공、연장전에 들어갔다。

안간힘을 다해 선두OB를 쫓던 三星·라이언즈는光州에서 해태·타이거즈에4―6으로패배、18승12패를기록함으로써 선두 OB와 3게임반차로 떨어졌다。

◇2일전적

◆대전

삼미	000	004	000	000	00	―4
OB	200	000	020	000	01	―5

〈연장14회〉

◆광주

삼성	000	040	000	―4
해태	003	020	10×	―6

女子핸드볼 凱旋

제8회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예선서 우승한 한국여자대표선수단이 2일하오 3시10분 KAL편으로 개선했다。

比복서 또死亡

【마닐라2日聯合】필리핀의프로복서 네스도·레피텐선수(22)가 지난29일 세부市에서 경기중 6회KO패、머리를 다쳐 치료중 2일 사망했다。

레피텐선수의 사망으로 필리핀서는 지난6개월동안 5명이링사고로목숨을잃었다。

마라도나移籍 5百90만弗에

【부에노스아이레스1日聯合】아르헨티나의 축구스타 디에고·마라도나(21)가 5백90만달러에 스페인의 명문 바르셀로나클럽으로 이적했다고 아르헨티나관영 텔람통신이 1일 보도했다。

베켄바워 現役은퇴

西獨축구대표로 百3회 出戰

【함부르크1日聯合】西獨의 축구황제 프란츠·베켄바워가 1일 함부르크에서 벌어진 西獨대표팀과 함부르크SV팀과의 자선경기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60년대와 70년대의 가장위대한 스타로 꼽혔던 베켄바워는 의날 고별경기에서 대표팀과 함부르크팀선수로 번갈아 뛰면서 각각 1골씩을 넣어 화려했던 현역시절을마무리지었다。

이날 경기서는 대표팀이 4―2로 승리했다。베켄바워는 현역시절중 국가대표로1백3회의국제경기에 출전、지난74년에는 西獨이 월드컵대회를 제패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두차례나 유럽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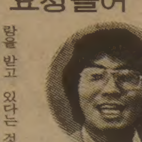
우리歌謠 日서 人氣

日語로 作詞번역·歌手취입 요청늘어

演芸話題

◇朴椿石

◇高峯山



◇羅勳兒

◇文珠蘭

日가수 부른 「가지 마오」 인기차트1位

羅勳兒신곡 「울긴 왜울어」도 취입결정

국제著作權協가입안돼 작곡가 로열티 손해

우리나라의 가요가 최근 日本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중진 작곡가의 작품을 日語로 번역、인기가수들이 취입경합을 벌이는가하면 경음악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또 日本 유명레코드사들의 한국가수 취입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金세레나·金富子·李成愛·金蓮子의 취입활동에 이어 文珠蘭이 킹레코드사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최근 재기한 羅勳兒에게도 취입요청이 들어왔다。

日本의 빅터레코드사는 지난 5월말 羅勳兒의신곡 「울긴 왜 울어」의 일어판 취입을 소속레코드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빅터측이 제시한 인세는 20%(작사·작곡료 포함)、羅勳兒측은 25%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세는 추후절충하기로하고 취입에합의、오는10일 취입차 일본을건너간다。

중견가수 사와·히로시가 작년5월 킹레코드사에서 취입한「가지마오」는 현재 유선방송 인기차트1위에 올라있으며 그외「노란샤쓰입은 사나이」는 51위를 마크하고있다는것。

일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우리나라 가요로는 「가슴아프게」(朴椿石작곡)「돌아와요부산항에」(黃善宇작곡)「공항의이별」「비내리는 호남선」「빗소리」(이상朴椿石작곡)「1990년」(吉屋潤작곡)「목포의눈물」등을 꼽을수있다。

이가운데 南珍이 불렀던 「가슴아프게」는 일본의 인기가수 모리·싱이찌、미조라·히바리를 비롯해 10여명이 불러 日전역에서히트했고 한국가수로는 李成愛가 불러 각광을받았다。

우리나라 작곡가가 일인가수를 위해 작곡한 가요도 인기가 높다고한다。엔까(演歌)의 명수 오가와·에이사꾸가 불러 크게히트한「님 그리운 해여」은 한국의 高峰山씨작품이다。그외 孫牧仁작곡의「가스바의여인」을 비롯해 吉屋潤 朴椿石 白映湖 徐永恩 孫夕友씨등의 창작곡이 애창되고 있다는 것。이들의노래는속칭「가라오께」(경음악)에 실려 주점등에서 노래하는 고객들의 반주구실을 하고 있다는것이다。

킹레코드사의 飯倉프러덕션에 3년간 전속된 文珠蘭은 三島大輔작곡의「棧橋」「빗소리」「먼별」、朴椿石 작곡의 「빗소리」등을 취입、활동하고 있는데 레코드판매분의 인세외에 출연료의 7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요가 인기를 모으는데 반해 작곡가에서 지불되는 로열티는 소액이거나 거의지불되지 않는 실정이다。

【李亨基기자】

曺名人 2연승 名人戰도전5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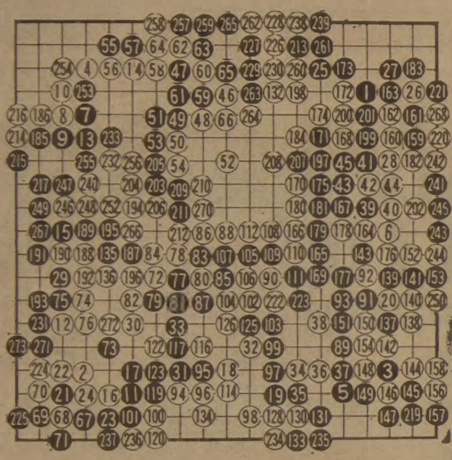
徐7단에 2백74수만에 2집반

제3국은 18일에

曺薰鉉名人(29)은 31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3기 名人戰 5번기(한국일보社주최)에서 도전자 徐奉洙7단에게 2백74수만에 2집반을 이겨 2연승을 거두었다。

이날 대국은 제1국때와는달리 비교적 빠른속도로 전개됐다。白30의 파한수로 중반초까지는 黑이 미세하게 앞서나가다가 黑79의 실착으로 白의강습을받아 국면은 白의우세로 뒤집혔다。曺名人은 우변에서 1백38의 괴수를두어 한때 徐奉洙7단의 추격을 받았다。

여기서 초읽기에 몰리면서도 曺名人은 국면을 잘수습、2연승으로 타이틀방어를눈앞에 두게됐다。제3국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제13기 名人戰 도전5번기 제2국총보(1～274)白 名人 曺薰鉉9단 黑 挑戰者 徐奉洙7단〈제한시간 각5시간 黑5집반공제〉소비시간 白4시간 黑2시간44분 ※1―3↓80※115、121、127↓21※118、124、129↓68※155、274↓3※218↓146※251↓92※269↓26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84년 亞洲탁구、파키스탄서

내년J大會에 한국도 招請

【자카르타1日聯合】아시아 탁구연맹(ATTU)은제7회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를 오는84년3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ATTU총회에 참석한 국제탁구연맹(ITTF)日本측이사 오기무라·이찌로(荻村一郎)씨는 이대회가84년 ATTU총회와동시에 열리게되며 그때 한국이 ATTU의 회원국으로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무라씨는 이번 자카르타에서 열린 ATTU총회가 한국을 사실상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으나 한국의 ATTU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밝혔기때문에 자카르타총회가 84년의 제7회대회와 83년12월 바레인에서 열리는 아시아 주니어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도록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개최는 이번 자카르타총회에서 결정됐으며 ATTU에의해 조직될것이라고 오기무라씨는 전했다。

在美동포 위문公演

혜은이·趙容弼등 11일부터 한달간

가수 혜은이、趙容弼과 위대한 탄생、河春花、코미디언 李朱一등 4명의 대형급연예인이 재미동포위문공연차 오는8일 도미한다。

한국일보社와 한국일보미주본사가 미국에살고있는 동포들의 향수를 달래주기위해 마련한 이번 위문공연은 11일부터 7월11일까지 1개월에 걸쳐 美10개도시에서 베풀어진다。공연일정은 11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로스앤젤레스、댈라스、휴스턴、오스틴、시카고、뉴욕、워싱턴、덴버、호놀룰루에서 막을 내리는데 이들은 7월13일 귀국할예정이다。

◇혜은이

◇趙容弼

◇河春花

◇李朱一

李承勳은 핀토르의 殺人펀치 깰것인가

WBC밴텀級 내일낮 LA서 타이틀戰

◇李承勳과 핀토르 LA 체육관앞에서 도전자 李承勳(左)과 챔피언 핀토르가 포즈를 취하고있다。【로스앤젤레스AP電送=聯合】

프로복싱 WBC 밴텀급 1위 李承勳(22)이 4일 낮(한국시간)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오디터리움에서 동급 챔피언 루페·핀토르(27·멕시코)에 도전한다。

핀토르의 8차방어전이 될 이번타이틀전서 李의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계자들의 의견이다。

살인적인 레프트훅(핀토르)과 날카로운 원투 스트레이트(李承勳)의 대결。李의 약한파괴력이 마음에 걸리지만 지난해9월22일 하리케인·데루(일본)와의 7차방어전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링에 오르지않은 핀토르도 전성기를 벗어난만큼 李의 투지와 젊음에 기대를 걸어본다。

7次방어후 링안올라 핀토르
持久戰펼치다 決定打 李承勳

지난80년부터 체중감량에 고심해온 핀토르는 그동안 오른손 부상때문에 경기를 갖지않은것으로전해지고있다。스트레이트、어퍼컷등을 다양하게 휘두르는 李의 전적은 21승(7KO)3패。지난80년1월 챔피언 결정전서 라파엘·오로노(베네수엘라)에게 판정패한후 이번에 다시세계정상을 노크하는것이다。

핀토르는 8년동안 47승(37KO)1무5패의 전적을 거둔 노련한 챔피언。특히 80년9월 3차방어전때는 도전자 조니·오웬(영국)을 12회KO로 쓰러뜨렸는데 오웬은 머리부상으로 며칠후 죽고말았다。

李는 약체도전자로 보이지만 핀토르를 겨냥하여착실하게 연습해온데다가 최근 2연속KO승을 거두는등 상승세에있어 행운의주인공이될 가능성도 없지않다。李는 트레이너 李鍾彦씨와함께 지난달18일 LA에도착하여 로드웍으로 체력을 쌓고 현재까지 1백여 라운드의 스파링을 소화해냈다는것。李의 캠프서는 아웃복싱으로 지구전을 펼치다가 金喆鎬처럼 몰통공격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작전을 세워놓고 필승을다짐하고있다。

李가 핀토르를 쓰러뜨릴경우 한국프로복싱은 金煥珍(81년7월)이래 11개월만에 새로운 세계챔피언을 갖게된다。【金仁奎기자】

流星의 賦 <39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⑯

사실을 말하면 명나라에서 구원군이 온다는 것은 탐탁한 일이 아니었다。10만 아니라 20만이 온다고 해도 그들이 애써 왜적들과 싸움을 벌일 까닭이 없었다。10만의 명군(明軍)이 들어오면 그만큼 국토와 민생은 황폐되는 것이다。

홍계남이 명나라의 조승훈이 평양에서 도망친 사실과 그들이 민가에 끼친 작폐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명나라의 구원없이 전쟁을 수행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계남이 본는 바 대로라면왜적은 아직도주력(主力)을 보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점점 염전기분으로 빠져들고 있었다。왜적이 한군데로 집결하는 것은 무의미한 충돌을 피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자는 속셈인 것이라고 짐작했다。아닌게 아니라 홍계남은 최근 얼마 동안 적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의 공수범위(攻守範圍)를 양성、안성、용인、진위、직산、죽산、수원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지역에서 홍계남이 출동하면 적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어떻게 정보를 알아내는지 속된 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계남이 출동하기만 하면 적은 그림자도 없어지는 것이다。그로 미루어 민간에 적과 내통하고 있는자가 상당수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밖에 없었다。그러나 계남은 단순한 짐작만 갖고 민간인을 끌고와서 심문하거나 처단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그런 대신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 경우엔 가차 없었다。

계남은 자기의 전담지역에선 전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북상(北上)을 한든지 남쪽에 있는 적의 요충(要衝)을 공격하기 위해 원정을 하든지 할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일단 자기가 떠나고 나면 적이 습격해 올것이 확실한 터이니 그럴 수도 없었다。간혹 들려오는 전투의 소식을 듣고 조바심을 내기만 했다。

그러던 동안 계남으로 하여금 절치부심케한 일이 있었던 것은 금산전투 때문이었다。

8월초순의 어느날 계남은 평소 자기가 존경하고 있던 의병장 조헌이 천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온양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계남은 혹시 합동작전을 할 수 있을 계기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부하 몇명만 거느리고 야행(夜行)하여 온양으로 조헌의 막사로 찾아갔다。

계남이 비로소 첫인사를 하고 자기가 홍계남이란 사람이라고 밝히자 조헌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흡사 장자(長者)를 모시듯 하는 예의를 다했다。

『어른께옵서 왜 이러십니까』

계남이 당황하자 조헌이 말을 있었다。

『국난에 연상 연하가 있을 수 있소。애국의 지성과 능력이 문제이지』

하고 조헌은

『홍공의 눈부신 전공은 이미 듣고 알고 있소이다。과(寡)로 중(衆)을 제(制)하고 연전연승한 공이야 말로 영웅이 아니겠소。노골(老骨)조헌이뭣이야 없을 수 있겠소만 역부족인걸 어떻게 하겠소。이렇게 만나 보니 정말 반갑구려』

하며 눈물까지 흘렸다。그리고 이우、이봉、김경백등 의사들 소개하고 서로 인사를 시켰다。

『다들 영걸들이오。나라를 위해 애쓰는 의사들이오』

流星의 賦 <39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⑰

『어른께선 무슨 일로 이곳에 나오시었읍니까』

계남이 정중하게 물었다。

『우린 북상(北上)하여 가까이에서 근왕(勤王)할까 하오』

조헌의 대답이었다。

『근왕에 원군이 있아오리까』

계남이 다시 물었다。

『근왕에 원군이 있을 수 없지요。그러나 내 생각인니다만 상감의 신변이 너무나 쓸쓸한 것 같소。북쪽에 왜적의 정예가 있어、아마 결전은 북쪽에서 있을 것이 아닌가 하오。충청도에 왔아 보잘 것 없는 왜적을 상대하는 것보다 큼직한 놈을 상대하고 싶소이다。뿐만 아니라 상감께선 명나라의 군사만을 고대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심경이 안타깝게만 여겨진단 말이오。그래서 우리 천명이 한편 행재소를 지키고、한편 평양성을 공략해서 명나라의 구원병 없이도 우리 힘으로 왜적을 무찌를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소이다』

조헌의 말이 이쯤 되자 김경백이 뒤를 받았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충청도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소。윤감사와 공주목사 허가의 농간에 견딜 수가 없단 말요。우리의 전투를 도우기는 커녕 방해만 하려고 하니。이러다간 그들 관(官)과 우리 사이에 큰 시비가 생길 위험마저 있소。그래 충청도를 떠나 떳떳하게 근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관찰사와 의병장 사이가 좋지 못한 예는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경상감사 김수와 의병장 곽재우 사이는 지금도 험악한 것 같고、함경도에서도 감사 윤탁연과 정문부 사이가 대단히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충청도 감사는 유별나요』

하고 김경백이 웃었다。

『그렇게 된데 내 책임도 있소。감사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자위책(自衛策)에만 급급하고 나가서 싸울 요량을 안하기에 호되게 꼬집어 힐난을 했더니 그 일에 감정을 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단 말요。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싸움을 할 형편도 못되구』

조헌이 한 말이었다。

홍계남이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하고 야무지게 경기감사에게 반항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공의 경우는 그럴만도 했소。그러나 저러나 방백은 왕인(王人)이니 지나치게 대항할 수야 있소。무거운 절 떠나라고 하기보다 가벼운 중이 떠나야 하지 않겠소』

『북상을 하신대도 적지(敵地)를 통과하셔야 할 것인데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 있사옵니까』

『대책이라야 별게 있겠소。야심에 길 더듬듯 하며 갈수 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와 더불어 전투、또는 행군(行軍)에 참고되는 경험을 주고 받고 있는데 바깥에서 기침소리가 났다。조헌이 물었다。

『누구냐』

『장덕익이옵시다。아뢸 말씀이 있어서 왔읍니다』

『들어 오너라』

하고 조헌은 계남더러 그냥 그자리에 있어도 좋다고 했다。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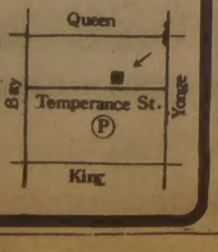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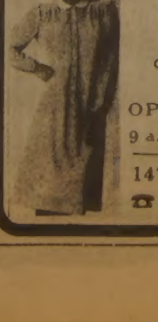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Maximode
o 숙녀를 위한 수입품 블란서. 이태리 햇슨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o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팬앞에 서고싶어요

피셔 디스카우、梁一勇씨에 밝혀

디트리히·피셔·디스카우。우리나라 음악팬들에게「가장 사랑받고 있는 리이트가수」다。금세기 최고의 성악가로 꼽히는 디트리히·피셔·디스카우가『꼭 한국을 방문해서 노래하고 싶다』는 뜻을 베를린에 유학중인 음악평론가 梁一勇씨를 통해 전해왔다。

梁씨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서 나를 별로 알지 못하리라 생각해왔는데 나의 노래를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한국음악팬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다면서 공연일정이 이미짜여져있는 83년이후에 공연을 갖겠다고 밝혔다는것。

「月刊音樂」6월호에 디트리히·피셔·디스카우와 梁一勇씨의 대담기사가 나왔는데 피셔·디스카우는『요즘도녹음、연습、오페라출연으로 정신을 차릴수없을 만큼 바쁘다』고 말하고『이렇게 바쁠수록 더욱 시간을 쪼개 정신을 다듬고 통일하는 여유가 필요한것 같아 가끔 東洋의「仁의 思想」에 대해 숙고해 보고 坐禪을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바리톤 디트리히·피셔·디스카우㊧가 한국음악평론가 梁一勇씨㊨와 그딸을 자택으로초청,그의 노래와 東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슈베르트 歌曲해석 세계으뜸
東洋사상에 매혹 가끔坐禪도

피셔·디스카우는『나는노래를 부르지만 東洋의 사상과 坐禪에 큰 매력을 느끼며、이 참선법은 가수의 연주 활동에도 어떤 새로운 힘을 찾아 주는 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軍에서 제대하고 가수로 데뷔했으나 그 전에 괴테 쉴러 하이네 노발리스 마이호퍼 슈레겔 뢰르너 뢰케르트등 뭇시인들의 시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낭만파의 특징을 철저히 배웠다。이렇게 공부하는동안 강의료도 많이 들었으나「노래의 샘」으로서 詩學을 알아두지않았다면 그의 음악은 지금보다 수준이 낮아졌을 것이라고설명했다。그의 노래는 명상적이며、더할 나위없이 깊고고귀하며、특히 슈베르트 가곡연주는 絶唱으로 꼽힌다。

그와 슈베르트의 관계는『슈베르트가 없으면 피셔·디스카우가 없고、피셔·디스카우가 없으면 슈베르트가없을것』이라고 비유될만큼 작곡가와 연주가가 비상하게어울려 음악을 더욱 승화 시키는 경우로 평가된다。

그는『성악가가 되려면 체격이 당당해야 유리하다』고 말하고『나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하고、숨을 쉴때의 배는 튼튼하게 쥔 북 가죽과 같이 세다』고 자신의 체격을 자랑했다。매일 강한 팔다리 운동과 심호흡을하고있어 건장한 청년들과 팔씨름을해도 거뜬히 이겨낸다고 한다。그는 슈베르트、슈만、말러、브람스、리스트、볼프등 많은 음악가들의 가곡전집을 내고 최근 슈베르트의「未完成교향곡」을 지휘한 음반도 내놓아 성악가는 지휘자는되지 못한다는 징크스를 깨기도했다。【禹桂淑기자】

바둑소식

趙治勳、고바야시 징크스 깰는지

6勝16敗의 기록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趙治勳4관왕(25)이 지난27일 끝난 제37기 本因坊도전7번기 제1국에서 숙적 고바야시·고이찌(小林光一·29) 9단에게 불계패、팬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징크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묘하게도 역전패를 잘하는 趙名人은 고바야시와의本因坊戰첫대국도 실리에서 앞서 나가다가 허무하게허물어져 大敗를 하고 만것。사까다(坂田榮男)콤플렉스때문에 한동안 고생하다가 사까다 벽을 극복해낸 趙名人에게 현재 가장거북한 상대는 고바야시9단 한사람밖에 없다。

현재 두기사는 本因坊戰뿐 아니라 제7기 碁聖戰의 도전권을 놓고 3번기를 갖게 돼있어서 사실상 10番棋를두어야할판이다。趙9단은 지난20일 日本棋院에서열린 碁聖戰본선준결승에서 다께미야(武宮正樹) 9단에게 집백으로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던것。고바야시9단은 이미 가또(加藤正夫) 9단과의 준결승에서이겨 결승에 올라있었다。이들은 3번기를 벌여 이긴쪽이 오오다께(大竹英雄) 碁聖과 도전기를 두게된다。

統一天下에 最大·唯一의장벽

고바야사9단은 또 趙9단이 타이틀을 갖고있는 名人戰도전자리그에서도 선두를 질주、도전권을 따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바야시9단이 여기서도 도전권을 따내면 兩雄은 도합 17番棋를 두게되는데 이것은 이들이 日本棋界를 양분하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趙治勳名人이 고바야시 9단에게 약한 징크스가 있는점이다。

지난 26·27일의 대국을 포함하여 趙·小林戰은 지난 68년부터 14년동안 도합 22회가 열렸는데 趙名人이 6승16패의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있다。이런 열세에도 趙9단이 日本棋界의 정상에 오를수있었던 것은 고바야시 9단이 지금까지 가토、林海峰、오오다께등 趙名人에게 비교적 약한 기사들에게 잘져 도전권을 따지 못했기 때문。그러나 금년들어 고바야시 9단은 本因坊戰 도전자리그에서 7연승 무패로 도전권을 따내는등 다른 기사들에게도 강세를 보여 趙名人 바로 앞에까지 육박해 오고있다。趙名人은日本棋界통일천하의 꿈을 이루기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바야시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6승16의 패라는 치욕적인 패배를 올해에 설욕하지 않는한、모처럼 구축해놓은 4冠王을 차례차례 빼앗길 가능성도 많다。趙治勳 4관왕과 고바야시의 지금까지 전적은 별표와 같다。

◇趙·小林 對戰기록

趙 (6승)			小林 (16승)
×	68년	日棋院선수권전	○
×	70년	名人戰1차	○
×	72년	本因坊戰2차	○
×	〃	新銳토너먼트	○
×	〃	首相杯결승	○
○	73년	日棋院선수권전	×
○	74년	新銳토너먼트	×
○	〃	早碁선수권전	×
×	75년	首相杯	○
○	〃	승단전	×
×	〃	新銳토너먼트	○
×	76년	碁聖戰리그	○
×	〃	首相杯준결승	○
×	77년	新人王결승①	○
×	〃	〃 ②	○
○	78년	碁聖戰예선	×
×	79년	JAA杯	○
○	80년	本因坊戰리그	×
×	〃	名人戰리그	○
×	〃	十段戰本選	○
×	81년	棋聖戰최고기사결정전	○
×	82년	本因坊戰도전기	○

徐奉洙·金熙中이겨

○…27일 열린 제26기 國手戰본선 제7국 金寅8단대 徐奉洙7단의 대국에서 백을 든徐7단이 4집반을이겼다。

또 같은날 열린 제7기 棋王戰본선 제15국 金熙中6단대 白成豪5단의 대국에서흑을 쥔 金6단이 2백36수만에 2집반승을 기록했다。

姜勳4단 불계승

○…27일 열린 제1기 MBC帝王戰 본선12국 金日煥4단대 姜勳4단의 대국에서 흑을 든 姜4단이 불계승을 거두고 본선토너먼트 2회전에 진출했다。

5·6일 전국春季대학聯盟戰

女學生도 한몫

제2회 春季전국대학바둑聯盟戰이 5·6양일간 崇田大학생회관3층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聯盟산하의 각대학棋友會들이 참가하게된다。

경기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각 대학(5명1組)이 3~4개組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다음 각組의 同等位끼리 순위결정전을 갖는 방식을택한다。지난해의 경우 23개팀이 참가했는데 금년은 몇개팀이될것인지 미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은 3일하오5시까지 한국기원사업부(723)0150)에 참가신청서를 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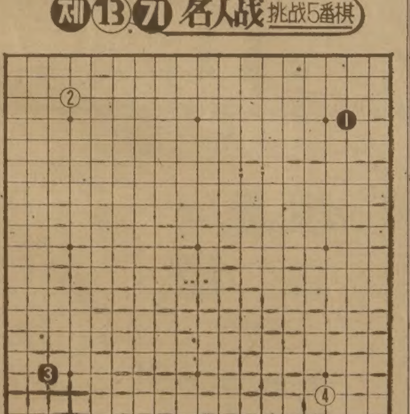
금년대회의 특징은 여성바둑인구의 확산에따라 본대회에 聯盟戰과 나란히 女學生部경기를 마련하고있는점。〈梁平기자〉

◇日本의 바둑잡지「週刊碁」는 최근 全棋戰제패를 목표로하는 趙治勳9단과 全棋戰에의 도전을 노리는 小林光一9단의 격돌을 만화로실었다。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1局 第1譜 1~4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徐奉洙
黑(名 人)曺薰鉉



뒤늦게나마、한국에서 처음으로 9단-入神의 경지에 도달한 曺薰鉉名人에게「알뜰한 찬사」를 보낸다。그리고 더욱 연전에 전관왕의 위업을 성취한 일로 그즉시 승단시키려는 것을 굳이 사양하고 소정의 승단대회를 거친일、다시말해서 실력에 의하여 당당히 승단한일에 감탄을 마지않는 바이다。

同時에 2개挑戰棋

이제 曺名人은 두번째의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고있다。徐奉洙7단에게서 王位타이틀만 앗아내면 되는 것이다。그러나 王位도전승부는 연2패끝에 지난5월25일 겨우 1승을 올렸는데 이와동시에 名人位 방어전마저 치르게 되었다。

한편 徐7단은 王位의 孤城을 결사적으로 지키려하겠고 겸하여 名人의 옛성도 기필 탈환할각오가대단하다。

이리하여 한국바둑계의 관심은 불가불 曺·徐의혈투에 한껏쏠리게 되었거니와 팬들은 曺名人의 천하再統一을 기대하는 쪽과 徐7단의 권토중래를 바라는 쪽의 두패로 갈라져 제각기 열띤성원을 보내고있다。

드디어 5월19일、名人戰 도전제1국은 한국기원의 단골대국장인 비원앞 雲堂여관에서 두어졌다。

黑1은 노타임이었으나 白2가 8분、黑3이 5분、白4가 10분。오늘따라 처음부터 지지부진。양자가 시간을 마냥소비하여 아무래도 유례없는 장기전이 될것같다。【一凡】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THE BIGGEST SAVINGS OF SINGER HISTORY

싱거 재봉틀 특별세일

기간 : 6월 15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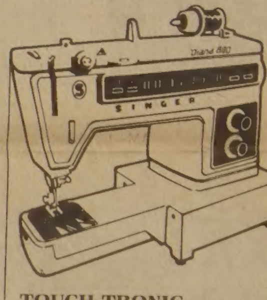
SAVE $50 ON SINGER* 247

SALE $119.95
REG. $169.95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Features front drop-in bobbin, sews button-holes and stretch fabrics.
Model 247

SAVE $200 ON SINGER ELECTRONIC 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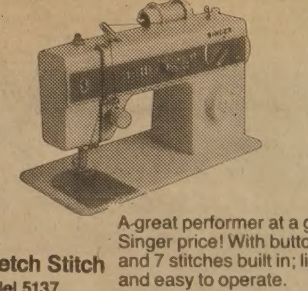


TOUCH-TRONIC MODEL 860

This Canadian-made Touch-Tronic machine also provides push-button selection of 14 stitch patterns, built-in buttonholer, twin needle sewing, automatic pattern start and many other features for smooth, easy sewing.

SALE $499.95
REG. $699.95

SAVE $120 ON SINGER 5137



Stretch Stitch
Model 5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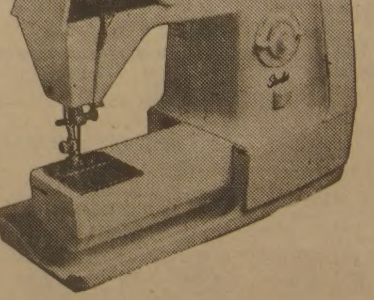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With buttonholer and 7 stitches built in; lightweight and easy to operate.
carrying case or cabinet not included

SALE $169.95
REG. $289.95

SAVE $90 ON SINGER 496

- Portable design makes this machine easy to carry and store but still gives you "big" machine capability.
- Free Arm makes sewing hard-to-reach places extra easy.
- Sew faster and smoother with electronic needle control.

SALE $299.95
REG. $389.95



※어떤 종류의 재봉틀이든
고칠 수 있읍니다.

SINGER APPROVED DEALER

HURRY!
This is your last week to save!

EAST
SINGER CENTRE
GERRARD SQUARE
1000 GERRARD ST. E (& PAPE)
☎ : 461-9764

VISA MasterCard

WEST
SINGER SQUARE ONE
MISSISSAUGA
☎ : 277-0341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조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셈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는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욥,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임 종 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충북 영동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배경희, 탁명순을 찾음.
연락전화 : 533-0489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 있으신분 구함
전화 : 665-8233

직원모집 (운전면허증소유자)
M & J 인터내셔날·비데오 Co.
◉. Operating 직원
◉. 전기 기술자
◉. 비데오·아케이드 매니저
전화 : 630-0313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그리운 혈우여 연락하라, 만나서 술한잔하세!
해병 187기 이성규가 해병 188기 정경태를 찾음.
우리는 1968~69년에 걸쳐 월남 호이안에서 같이 싸웠음.
연락처 : 57 Octavia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 1-415-552-1438

Gas Attendant 구함.
전화 : 782-6311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구 직

Baby Sitter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전화: 245-8373 (Mrs. 박)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습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BUSINESS 안내

1) 작고 알찬 Variety Store
Pape & O'Connor 네거리에 있음. 작년주매상평균: $4,600
그외 로타리오 머신에서 순수입 월 $800이상.
렌트: $500, 리스: 2년+5년, 아스킹: $40,000

2) 처음 혼자 해보실 분에게,
3410 Kingston Rd. M & P Milk Store로
들려보십시요. 렌트: $300, 새리스: 5년+5년이 가능
하고 경쟁자 없음. 봄 여름에 정원용 Business를 별도로
할수 있음. 주매상: $2,500 아스킹: $15,000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1919 Lawrence Ave. E. Tel: 752-3111
곽 석 용

집 팝니다(Bellwood Queen Area)
6베드·룸. 좋은 조건임(Private Sale)
가격 : $66,000.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445-9486

CAN-AM REAL ESTATE LTD.

Wanted 2 licensed Real Estate sales people to service Ontario's Korean community. A working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is important. You will represent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ne of Florida's largest home builders and community developers.
Top commission, starting salary and manager status available to successfuly applicant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T. Hill at 661-1625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A1430-80
*Ask for and read carefully the Prospectus relating to this offering.

세탁소 매매(Depot)
가격: $39,000 (Washing & Dryer 포함)
Rent: $1,100(Four Bed Room 포함)
리스: 3년 + 3년, 주매상: $900~$1,200
전망이 좋음. 465 Vaughan Rd. Toronto,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가정 형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75년도 클라이슬러 (Town & Country Wagon)
Certified $1,000 전화: 270-2709

Building for Sale (All Best Offer)
(각종 어떤 업소에도 적당한 건물임) 아스킹: $105,000
982 Pape Ave. 전화: 422-5029 (Mike)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ALBANY REAL ESTATE LTD.
1) Hotel: Room-45, (8개월간 영업)
Niagara Falls Restaurant (Tavern), Gift Shop
모두 포함. 가격: $700,000
2) Restaurant Tavern: 건물포함, 2 apartments
가격: $295,000, 다운페이: $75,000
3) Burger - Chicken Take out Only;
스카브로 플라자에 있음. 주매상: $4,000
Call Wm Matevich 251-4656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전망좋은 지역으로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호텔을 아파트먼트로 개조한 건물 팝니다.
(5 아파트먼트 & 1 Store)
자세한 문의는 전화 : 846-0800 (Hogg)
Royal City Realty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농장매매
토론토 서북쪽에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여러가지 동물(소, 말, 양 등)을 기를수 있는
100에이커의 농장을 가정사정으로 급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46-3458
(오전11시에서 오후9시사이에 연락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3,500 Rent: $650
리스: 5년 + 5년. 전화: 781-1072

GOOD BUSINESS OPPORTUNITIES

1)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스토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음. 좋고 긴 리스(Lease)
주매상: $8,500 이상. 아스킹: $275,000

2) 서북쪽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2년 되었으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6,500 이상. 아스킹: $190,000

3) Drive in fast food.
3년간 성업중이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4,000 이상. 아스킹: $165,000

4) 도너츠 숍(Shop)
최고의 Lease조건과 좋은 위치에 있음.
주매상: $4,500 이상. 아스킹: $250,000

5) Drive in fast food.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최고의 Lease조건
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525,000

For more details(상세한 문의는-)
전화: 967-1151 Ben
Benhur Real Estate Ltd.

1) 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 인 햄버거 숍
주매상: $8,000 리스: 4년 + 옵션
렌트: $1,700 아스킹: $350,000
2) Variety & Gift Shop (건물포함)
토론토에서 30 mile 거리에 있음.
년매상: $600,000 아스킹: $420,000
3) 사무실 Building안에 있는 미장원
주5일 오픈. 주매상: $1,500 리스: 6년
아스킹: $45,000
4) 그외에 시간짧고 운영간소한
Fast Food & Take Out 비즈네스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Convenience Store 매매
◉오샤와 지역 ◉렌트: $185 ◉리스: 4년
◉Whitby 지역 전화: 282-7596

대지(Cottage용으로 적합) 매매. Best Offer
Midland Area (Barmbeach) 넓이: 50ft × 120ft.
(Toronto에서 80mile 거리) 전화 : 922-2966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꽃집매매. 조그마한 자본으로 이윤높은 꽃가게.
바쁜 지역으로서 Parking장도 있음.
가격 : $7,900. 전화 : 698-9188 (마이클)

"급 매"
세탁소와 Bakery(Plaza안에 있음).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4020 Dundas St. W.

하우스 렌트

Detached Building
버라이어티 또는 도너츠가게를 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구비한 건물이며 또한 최고의 리스조건을 갖추고 있음.
넓이: 2,400 Sq.ft. 20여대의 차를 Parking시킬수 있음.
(Airport & Derry Rd.)
전화 : 967-0019 Sam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방세놓습니다. (College & Brunswick)
부엌과 목욕탕, 출입구 따로 되어있고 혼자서 생활하기에 적합함. (지하실: Mon/$200) 전화: 923-6236

아파트 렌트 (One Bed Room)
High Park 지역 전화: 766-4703(Yar.)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초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램톤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